

2026 프랑스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가. 정부 현황	08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8
3. 주요 이슈 Pick	10
가. 재정적·정치적 불안정 고조	10
나. 대규모 전력망 개발 계획 추진	11
다. 방산 분야 대규모 투자 추진	11
라. K-뷰티 열풍	12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4
가. 시장 특징	14
나. 무역	16
다. 산업	21
라. 투자	22
2. 유망 산업	27
가. 전력 기자재	27
나. 재생에너지(해상풍력) 기자재	29
다. 원자력 발전	31
라. 방위 산업	34
3. 협력 기회	36
가. 통상·G2G	36
나. 공급망 협력	38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1
2. 진출전략	43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52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56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58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9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3. 주요 이슈 Pick	10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 '25년 GDP 성장률 약 0.6%, '26년 0.9~1.2%로 소폭 회복 전망

- (대내) 물가 안정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 제한적
 - (민간 소비)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둔화로 가계 실질소득 소폭 개선 전망
 - (민간 투자) 긴축 재정과 무역·관세 불확실성으로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은 상방 요인
 - (공공 재정) '24년 말 기준 국가부채는 GDP의 113%로 유로존 내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으며, 긴축 재정으로 공공 지출 감소 전망
- (대외) 수출 여건 개선 전망되나, 정치 불안에 따른 투자 제약 지속
 - (수출) 글로벌 수요 회복과 미국-EU 간 관세 15% 합의로 수출 확대 가능, 미국산 수입 증가는 순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
 - (투자) 항공우주·기술·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투자 기반 견조하나, 정치 불안에 따른 하방 압력 상존

□ (호재 요인) 저물가·금리안정 및 대외 수요 회복

- 저물가 기조 유지로 가계 실질소득 개선 예상
 - 인플레이션이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인 2% 이하(약 1.4%)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질 임금 증가에 힘입어 소비 증가 예상
 - '25년 하반기 ECB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내수 하락 방어 가능
- 미국-EU 관세 합의 및 방산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예상
 - 미국 상호 보복관세 위험 해소되었으며, 항공기 등 핵심 품목 관세면제 유지
 - EU 차원의 국방 투자 확대로 프랑스 방산 업체 수요 증가 기대

□ (부진 요인) 국내 정치 및 재정 위험도 고조

- 재정적자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지속되며 혼란 가중 전망
 - 국가 부채 감축 위한 '26년 예산 동결안을 둘러싸고 여론의 반대 거센 상황
 - '25년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어 '26년 예산안 통과에 난항 예상

-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25년 하반기 파업·시위 증가 예상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65.0	65.3	65.4	65.6	65.9	66.1	66.4	n/a
명목 GDP	십억 달러	2,732	2,636	2,957	2,780	3,061	3,160	3,335	3,367
1인당 명목 GDP	달러	41,924	40,377	45,187	43,023	46,068	47,488	50,036	50,443
실질 성장률	%	1.9	-7.9	6.8	2.5	1.6	1.1	0.6	1.0
실업률	%	8.2	7.8	7.7	7.1	7.3	7.4	7.6	7.6
소비자물가 상승률	%	1.3	0.5	2.1	5.9	5.7	2.3	0.9	1.4
재정수지(GDP 대비)	%	-3.1	-8.9	-6.4	-4.8	-5.4	-5.8	-5.7	-5.2
총 수출	십억 달러	597.4	504.7	619.2	669.6	679.7	670.9	675.6	679.6
(對韓 수출)	십억 달러	5.7	5.4	5.6	6.1	6.4	7.2	n/a	n/a
총 수입	십억 달러	649.7	572.4	699.4	813.9	762.0	734.1	753.2	759.2
(對韓 수입)	십억 달러	3.8	3.4	5.4	6.7	9.3	6.4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52.4	-67.7	-80.2	-85.6	-82.3	-63.2	-77.6	-79.6
경상수지	백만 달러	-8.2	-49.1	-17.7	-41.9	-30.1	12.1	-1.9	-3.2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12	1.14	1.18	1.05	1.11	1.04	1.11	1.11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86	442	550	527	723	n/a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39	179	341	759	420	n/a	n/a	n/a

주: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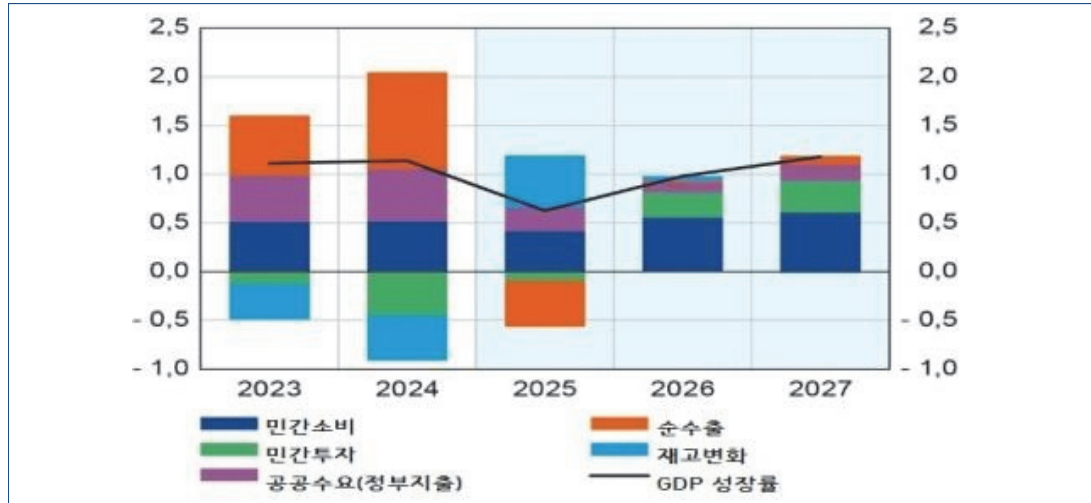
자료: EIU, INSEE(인구, 프랑스 본토), Global Trade Atlas(對韓 수출입), UNCTAD(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25년 9월 기준
확인 가능 최신자료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 성장률) '25년 연간 평균 GDP 성장률 전년 대비 감소한 약 0.6% 예상
 - '24년 1.1% 성장률에 이어 '25년 1분기 0.1%, 2분기 0.3%로 소폭 성장
 - 다만, '25년 2분기까지 GDP 개별 요소는 부진한 상태로, 가계 소비·기업 투자 등 내수 수요 0.0% 성장률 기록
 - 대외 무역은 수출 대비 수입이 빠른 증가세, 미국 관세인상 및 유로존 외 지역의 수요 감소, 환율 상승 등의 영향
 - 미국-EU 관세합의에도 지속되는 높은 불확실성과 미국-중국 무역분쟁 격화로 기업 투자 위축
 - 저물가 기조에 힘입은 국내 수요, ECB의 통화정책 완화, 기업의 재고 변동이 '25년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며, 그 외 요인은 제한적

〈프랑스 GDP 성장을 및 주요 지표 성장을 추이〉

(단위: %)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25년 6월 11일 발표) <https://www.banque-france.fr/fr/publications-et-statistiques/publications/projections-macroeconomiques-juin-2025>

- (민간 소비) '25년 하반기부터 GDP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 예상
 - 실질 가처분소득 성장세는 '24년 2.5% 큰 폭 증가 후, 사회복지 감축 및 재산 소득 증가세 둔화로 '25년 0.5%, '26년 0.2%로 약화 예상
 -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24년 가계 저축률은 코로나19 후 최고치로 상승(18.2%)
 - 가계 소비 증가율은 '24년 0.9%에 이어 '25년에는 0.7%로 둔화될 예정이나, 실질임금 증가에 힘입어 '26년 1.0%, '27년 1.1%로 꾸준히 상승되며 소비 회복 뒷받침할 전망
- (민간 투자) '23년 8.2%에 이어 '24년 5.7%로 급감했으나 점진적 회복 전망
 -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가계의 주택 구매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시장 관망세는 지속
 - 건축 프로젝트 허가 수는 장기간 감소 이후 안정되는 추세로, '25년 중반부터 신규 주택시장 회복 조짐
 - 금융·통화 여건 완화 효과가 반영되면 '26년부터 민간 투자 회복 전망. 특히,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제약적 대출 조건으로 '24년부터 감소해온 기업 투자는 향후 금리 하락과 대출 조건 개선으로 회복 추세 진입 전망

- (산업생산) '25년 초 단기 회복 후 감소세 전환, 수요 부진 및 기업심리 악화 지속
 - 연초 산업 활동 비교적 침체된 상태로 출발 후 전 분야 수요 약세로 제조업 회복세 둔화
 -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 미만으로, 산업 경기 회복 불안정하며 위축된 상황

* 프랑스 제조업 PMI 지수 48.1포인트 기록(S&P글로벌, HCOM '25년 7월 발표)

- 정부의 에너지 및 국방 분야 정책과 적극적 투자가 산업생산 하락 일부 방어
 - * 프랑스 국회, 7년간(~'30년) 군 예산 4,133억 유로 책정, 이전 군사계획법에 따른 예산 대비 약 1,180억 유로 증액(+40%)
- (대외 교역) 유럽지역 수요 약화와 미국 관세인상 영향으로 수출 둔화
 - 상품 수출의 60%가 EU 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유럽지역 수요 약화가 수출 성장에 부정적 영향
 - 관세합의 이후에도 '25년 EU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 부과 영향 있을 전망
 - '23년 이후 수출은 프랑스 경제 성장에 기여해온 것으로 분석되나, '25년 1분기 수출 1.8% 감소, '25년 평균 0.1% 감소 예상
 - * 특히 화학·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제품 수출의 감소로 둔화 심화(프랑스 중앙은행, '25년 6월 발표)
 - 수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된 후 향후 회복하여, '27년부터 GDP 성장률에 기여할 전망
- (투자 유입) EU 내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국이나, 프로젝트 수는 감소세
 - EU 내 투자 5건 중 1건은 프랑스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속된 노동법 개혁, 법인세 및 생산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의 결과로 분석
 - '24년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1,025건 기록, 전년 대비 5% 감소한 수치
 - 정부의 친환경 산업 중심 제조업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로, 주로 제조업 등 생산 분야에 투자가 집중 되는 추세
 - '24년 기준 주요 투자국은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순이며, 10위권 내 아시아 국가는 중국이 유일
- (투자 진출) 주로 EU 역내 주변국으로 대외 직접 투자
 - 프랑스는 투자 유입 대비 해외 투자 진출이 더 많은 편
 - '23년 말 기준 총 해외직접투자(OFDI) 금액은 672억 유로로, '18년 이후 최고
 - * 프랑스 중앙은행 발표('25년 9월 기준)
 - 주로 해외 자회사의 이익 잉여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 투자를 주도해왔으며, 제조업, 금융 서비스, 부동산, 상업 분야에 집중
 - 영국, 벨기에,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등 주변국 투자가 해외 투자의 대부분 차지

2. 정치(정책) 환경

- 연립정부 구성 실패와 여소야대 국회로 국정 불안정, 조기 재총선 가능성 고조
- 탈탄소 친환경 산업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지속 전망
- 플라스틱 사용 금지 로드맵에 따라 매해 신규 적용되는 플라스틱 규제 속지 필요

가. 정부 현황

□ '24년 조기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회 구성으로 국정운영 불안정 지속

- 다극화된 의회 구성으로 정책 추진에 제약 심화, 조기 재총선 가능성 증대
 - 조기 총선 결과('24년 7월) 총 577석 기준, 모든 정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형 의회(Hung Parliament) 상태
 - * 3개 블록(좌파연합 NFP 31.5%, 집권 여당 앙상블 29.1%, 극우 RN 24.7%)으로 정치 지형이 분열된 상태이며, 서로의 이념이 충돌하며 연립정부 구성 실패
 - '24년 12월 임명된 바이루 총리 '26년 예산안 의결 앞두고 국회의 불신임안 의결 이후 실각, '25년 9월 신임 총리로 세바스티앙 르코르뇌 전 국방부 장관 임명
 - '26년 긴축안이 여론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예산안 통과 난항 예상
 - 본래 '29년에 정규 총선이 예정됐으나, '25년 하반기 국회의 총리 불신임안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 가능성 또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음
 - *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연 1회에 한하여 의회 조기 해산 권한이 있음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산업 경쟁력 및 기술 주권 강화

- 'France 2030' 미래전략산업 투자 지속
 - 산업 경쟁력 및 경제·에너지 주권 강화를 위해 '21년 발표된 540억 유로 규모 미래전략산업 투자 계획으로, '10대 전략 분야' 및 중장기 목표 제시
 - * 10대 중점 주요 투자 분야 : 차세대 에너지(SMR(소형원자로), 수소, 에너지 저장), 탈탄소 산업(그린 인프라), 지속가능 교통수단(전기차, 배터리, 저탄소 항공기 등), 농업 및 식량 혁신, 헬스테크, 문화창작 산업, 반도체, 우주항공, 심해·해양 기술, 디지털 기술
 - '25년 4월 기준 최근 3년간 SMR 원자로 건설, 반도체 공장 설립, AI(인공지능) 클러스터 구축 등에 380억 유로 예산 집행

- 전략 분야 외국인직접투자(FDI) 사전 승인 의무 확대
 -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제약이 없었으나, 팬데믹 이후 국방, 정보기술 등 주요 산업에 있어 사전 투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분야를 확대하는 추세
 - * '25년 기준, 반도체·전자, 방위·군수, 저탄소 에너지 생산·연구, 핵심 원자재 추출·가공·재활용, 항공·우주, 의약·백신·공중보건, AI, 로봇,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데이터 인프라, 수자원 인프라 등 분야에 적용
 - 민감한 전략 분야에서의 해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외국 기업의 프랑스 기술 및 인프라 통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 친환경 전환 및 기후 관련 규제 강화

- 저탄소 중심 산업 구조를 위한 '녹색 산업법(Loi Industrie Verte)' 시행
 - 제조업 중심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24년 초부터 시행 중
 - 산업의 탈탄소화(녹색 기술 대규모 투자 유도), 공공조달 환경기준 강화(녹색 기업 우선 지원), 녹색 금융 활성화(친환경 산업자금 조달 전용 금융수단 신설), 녹색 일자리 창출 등 목표
 - 공장 설립 인허가 시간 단축, 녹색 기술 투자 대상 세액공제 혜택 제공
 - * 인허가 행정절차 동시(병행) 진행, 공익적 긴급사유 인정 등으로 인허가 시간 단축, 기가팩토리 등 국가적 관심 프로젝트는 지방 당국이 아닌 국가 차원의 허가 발급으로 중앙화·신속화된 승인 추진
 - * 배터리·히트펌프·녹색수소·풍력 터빈·태양광 패널 부문 투자 시 투자금의 20%~45% 세액공제
- '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사용 금지 로드맵 가동
 - ('21~'25년)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포장 제거, 플라스틱 100% 재활용 달성 목표
 - ('26~'30년)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 포함 원료 사용 금지, 음료용 플라스틱병 재활용 원료 최소 30% 포함 의무화, 연간 1만 개 이상 제품 출시 및 매출 1,000만 유로 이상 생산자 대상 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 입증 의무화 등
 - ('30~'40년)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전면 퇴출 최종 목표(구체적 규정 미정)

3. 주요 이슈 Pick

가. 재정적·정치적 불안정 고조

□ 재정 적자 축소 압박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국정 안정 어려울 전망

- '26년 예산안 동결계획 발표 후 '25년 9월 의회 불신임으로 총리 실각
 - '26년을 '공백의 해'로 선포, 국방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사회보장, 연금 등) 동결안 및 여타 긴축안(공휴일 폐지, 세금 인상 등) 발표 후 국민적 반대와 하원 불신임안에 부딪혀 바이루 총리 사퇴
 - 여소야대 국회 구성으로 불신임 결과가 조기에 예견되었으며, 마크롱 대통령 또한 낮은 지지율로 불안한 상황('25년 9월 기준 약 15%)
 - '25년 하반기 공공 지출 절감에 반대하는 다수 시위 및 파업 예상
 -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정치적 불안정성 고조 전망

※ 프랑스 '초과 재정 적자 시정 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프로그램 시행

- EDP는 EU의 재정규율 체계로, 재정 적자가 GDP의 3%, 공공 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제하는 절차
 - * 프랑스는 '24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5.8% 기록되어 EDP 대상
- EDP 개시가 결정된 회원국은 향후 4~7년간 부채 및 적자 축소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년 GDP의 0.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재정 적자에 대응한 '26년 재정 긴축 기조로 사회·경제적 파급 우려 확대
 - 공공조달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축소 및 지연 가능성 높은 편
 - 사회보장·의료 예산 감축으로 시민 단체 반발 및 시위 확산 가능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25년 하반기 정치적·재정적 불확실성 속 민간 소비, 기업 투자 등 주요 지표의 정체로 산업 성장 여력 제한적일 전망
 - 정부 발주 프로젝트 축소에 따라 인프라·건설·환경 관련 수출 기회 감소 우려
 - 지방정부 예산 감축으로 지역 단위 투자 협력사업 진행 더딜 것으로 예상
 -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시장 판매 부진 가능, 단기 진출보다는 중장기 진출 목표로 전략 수립 필요

나. 대규모 전력망 개발 계획 추진

□ 대규모 송전 네트워크 개발 계획에 따라 전력망 인프라 수요 증가 기대

- 전력망 운영사 RTE, '40년까지 1,000억 유로 규모 전력망 개발·운영전략 SDDR(Le Schéma de Développement du Réseau) 발표('25년 2월)
 - (배경) '90년대 원전 개발 이후 프랑스의 전력기자재 산업이 축소되며 인력 및 생산능력 부족, 산업 생태계 확장 필요
 - (목적) 전력 수요 증가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등 고려, 노후화 시스템 교체 및 전력망 강화·확장
 - * '40년까지 4만km의 송전망 교체·해체·보강·신설, 변전소 400개 신설
 - (주요 내용) 노후 송전망 교체, 저탄소 생산시설(재생에너지, 원자력)-전력 소비 인프라 간 연계 강화, 전력 생산지-소비 중심지 간 초고압 송전 운영 최적화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400개 이상의 신규 변전소 건설 계획에 따라 변압기·개폐기·보호장비 등 수요 증가 전망
 - 현재 대한 수입 증가 품목 분석하여 관련 품목 수출 확장 필요
 - 프랑스 전력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필요할 것으로 전망

다. 방산 분야 대규모 투자 추진

□ 외부 위협 확대와 국가 간 세력 경쟁으로 방위 산업 투자 규모 증가

- 마크롱 대통령, 국방예산 대폭 증가 계획 발표('25년 7월)
 - 신규 국가전략(RNS, Revue Nationale Stratégique)에서 '30년까지의 국방·외교 로드맵 제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등 지정학적 갈등 고조 상황 반영하여 구성
 - '26년 35억 유로, '27년 30억 유로 추가 투입 발표, '27년까지 총 640억 유로 예산 투입 확정
 - 국회는 '24~'30년 군사계획법(LPM, 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통해 7년간(~'30년) 군 예산 4,133억 유로 책정
 - * 이전 군사계획법에 따른 예산 대비 약 1,180억 유로 증액(+40%)
 - 우주, 해저 등 새로운 분쟁 영역 출현에 대응하여 군 우주 역량 갱신 및 강화에 60억 유로 투입, 해군 감시 및 작전 능력 확대, 사이버 예산 3배 증액
 - 차세대 유럽 전투기, 미래 전차 등 유럽 차원의 초국가적 방산 프로젝트 본격화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전례 없는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과 제도 정비로 AI, 디지털, 해양 우주 분야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기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AI 기반 감시·정찰 및 전자전 시스템, 사이버 방어·공격 체계, 무인 항공기(UAV) 및 수중 드론, 친환경 방산 소재, 에너지 절감형 무기 체계 등 유망
- 군사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던 과거 방식에서 이제는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중
- 기술 변화 가속화와 복잡성 증가로 군사 분야 R&D(연구개발)가 외부로 확장되고 스타트업, 연구소 등과의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 진입 가능성 증가할 것으로 전망

라. K-뷰티 열풍

□ K-뷰티, 프랑스 뷰티 산업에서 현재 가장 성장 중인 틈새시장으로 평가

- 주요 일간지 르몽드, ‘한국이 뷰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25년 8월)
 - 한국을 프랑스에 이은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25년 상반기)으로 소개
 - 화장품 전문 채널은 물론, Amazon, Monoprix 등 온·오프라인 종합 소비재 유통채널에서도 K-뷰티를 별도로 홍보·판매하는 현상 소개
 -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으로 한국 브랜드가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유럽 시장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분석
 -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 시 유럽 수출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럽 기업에도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소개
- 입증된 성장성을 바탕으로 프랑스 시장의 K-뷰티 수요 가속화 전망
 -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면서 소비자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지 전문가들은 K-뷰티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트렌드로 평가
 - 가격 경쟁력, 혁신적인 기술(정교한 피부 진단, 색소 표현 등)이 강점으로 작용, 자연성분 기반 신소재 성분이 프랑스 트렌드와 일치한다는 전문가 분석
 - 프랑스 소비자층이 K-뷰티의 ‘예방 중심 스킨케어’에 익숙해지면, 전 단계 제품군을 장기적으로 반복 구매하는 고객 확보 가능
 - 향후 두피케어, 뷰티 디바이스(LED 마스크 등), 건강 보조제 등의 시장으로 확대 가능성 높음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현지에서는 중국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 부과 가능성이 K-뷰티의 유럽 수출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 기존 강자인 프랑스 기업의 점유율 잠식을 우려함
 - 현지 유통 대행사 및 뷰티 전문 리테일러와의 관계 구축 등 맞춤형 유통 및 마케팅 전략을 유지하고, 규제 강화로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 필요

A stylized world map composed of small white dots on a dark blue background, spanning the entire page. The map is centered and shows the outlines of the continents.

Ⅱ.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4
2. 유망 산업	27
3. 협력 기회	36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세계 7대·유럽 2위 경제 규모, 전략적 중요도 높은 EU 진출 거점 시장
- EU 국가와의 교역 비중 높은 편, 주변국 경제 성장 둔화로 '25년 상반기 수출입 모두 감소세
- 한국-프랑스 간 상품 교역액은 증가 추세로,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 중
- 한국은 프랑스의 20번째 수입 상대국, 선박,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화장품 등이 주요 수입품
- 6년 연속 EU 내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기록한 반면 프로젝트 수는 감소 추세

가. 시장 특징

□ 전 세계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시장

- '24년 GDP 약 3조 1,000억 달러로, 세계 7위, EU 역내 2위 규모
 - 적극적인 비즈니스 문화, 정교한 금융시장, 강력한 지식재산권 제도 보유
 - GDP 대비 다국적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환경·화학·기계 등 첨단 제조 기업 다수 포진
- * 석유, 화학, 금융, 자동차, 항공·우주 분야 Fortune Global 500 포함 기업 24개('24년 기준)
- 인센티브 지급, 투자자 지원, 해외 무역진흥사무소 운영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상당한 자원 투입

□ 유럽 두 번째 규모 시장이나, 소비 성향은 보수적

- 기대수명 높으며 인구 고령화 현상 심화
 - 인구는 지난 1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5년 1월 약 6,860만 명 기록
 -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차지('24년 기준), '50년까지 인구의 1/3이상 차지 전망
- 독일 이은 EU 경제 대국으로, 지출패턴 보수적인 편
 - EU 전체 면적의 15.1%, 전체 인구의 13.1%
 - 민간 소비는 GDP의 54.3% 차지,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상품을 사전에 조사·비교하는 데 익숙한 소비자가 많은 편

- 유럽 다른 지역에 비해 건강·교육·통신·주거·교통 부문의 소비 비중 높으며, 의류·음료 등 소비 비중은 낮음

* 1인당 의류 소비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절반 규모, 호텔과 레스토랑 소비는 유럽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편

* 프랑스 통계청

□ 주요 인증

- CE(Conformité Européenne) 인증
 - (대상) 기계류, 완구류,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개인보호장비, 통신 단말기, 건축자재 등 공산품에 광범위하게 적용
 - * CE 인증이 필요한 세부 품목 리스트는 EU 집행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의미) 제품이 EU의 안전, 보건, 환경, 소비자보호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증명
 - (유의사항) 제품별 세부 지침이 다르므로, 해당 제품이 어떤 CE 인증 제품군에 속하는지 판단 후, 적합한 지침에 따라야 함
-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인증
 - (대상) EU에 수출되는 모든 종류의 화장품
 - (개요) EU 화장품 규정(EC 1223/2009)에 따라 온라인 화장품 신고 포털 CPNP에 등록 필요하며 (사실상 사전 신고제), 개별 회원국이 사후 관리·감독
 - (유의사항) 등록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 서류 미비 경우 보완 절차가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 필요

□ 고밀도 교통 인프라 기반 EU 역내외 진출 거점

- 내륙 및 해안 교통 편의로 EU 역내 이동 활발한 편
 - '23년 고속도로 화물수송량은 3,310억 톤/km으로, 유럽 주요국 중 높은 편
 - 고속도로 총 1만 1,000km, 철도 3만km, 해로 5,000km 등 인프라 보유
 -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확충 위한 정부 투자 증가 추세
- 중동·아프리카 등 EU 주변 지역으로의 진출 용이
 -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은 '24년 기준 유럽 27개국 중 화물수송량 1위, 승객 수 기준 런던 히드로 공항에 이어 유럽 2위 차지
 - EU 인접 지역과의 연결 용이, 항공·물류 중심지로 활용 가능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주요 교역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수출 감소 지속
 - '24년 총 수출액은 6,3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감소
 - '25년 6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2,910억 달러로 감소세
 - 역내 주요 교역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유로화 강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가 원인으로 분석됨
 - *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변국과의 교역액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
- **(수입 규모)** '23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입액 감소 추세
 - '24년 총 수입액은 7,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 감소
 - '25년 6월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한 3,390억 달러로 감소세
 - 국내 수요 둔화 및 에너지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

프랑스 역외 수출입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역외수출	651	4.9	638	-1.8	291	-9.8
역외수입	788	-4.2	750	-4.8	339	-10.7
무역수지	-137	-32.3	-111	-18.7	-48	-15.9
총 교역	1,439	-0.2	1,389	-3.4	631	-10.3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8월 기준)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EU 역내 주변국 및 미국이 프랑스의 주요 수출 상대국
 - * 독일(13.0%), 이탈리아(8.1%), 미국(7.9%), 벨기에(7.6%), 스페인(7.4%), 영국(6.1%) 등
 - '24년 역내 수요 감소로 미국, 중국 등 EU 역외 국가로의 수출 점유율 증가
 - * 對미 수출 점유율 : '24년 연간 7.9% → '25년 상반기(1월~6월) 8.7%
 - * 對중 수출 점유율 : '24년 연간 4.0% → '25년 상반기(1월~6월) 4.1%
 - 한국은 프랑스의 19번째 수출 상대국이며, '25년 6월 누계 對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 기록

- **(수출 품목)** 항공·우주, 음료, 화장품·향수, 가죽·가방 품목 세계 수출 주도
 - 전 세계 음료 수출 점유율 14.5% 차지, 화장품·향수 분야 점유율은 15.0%
 - '24년 전반적으로 모든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액이 감소한 가운데, 화장품·향수, 화학제품, 의약품 부문에서 수출 증가 기록
 - * 화장품·향수는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의 고급 소비재 수요가 견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24년 주요 수출 품목은 원자로 및 보일러, 자동차 부품, 전기기기, 항공기 순으로 '25년 상반기까지 같은 추세가 이어짐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EU 역내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높은 편
 - * '25년 7월 누계 기준 독일(14.3%), 벨기에(8.7%), 네덜란드(8.1%), 이탈리아(7.7%), 스페인(7.3%) 등
 - 주요 수입 상대국 10개국 중 EU 역외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 있으며, 점유율은 각각 6.3%로 동일
 - '25년 6월 누계 기준 EU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추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추세 시현
 - * '25년 5월 누계 대비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15.2%, 對중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14.5%
 - 한국은 프랑스의 22번째 수입 상대국이며, '25년 6월 對한 수입액은 12.6% 증가
- **(수입 품목)** 역외수입이 증가하는 품목 포착하여 품질·기능 차별화 필요
 - '24년 프랑스의 주요 수입 품목은 원자로 및 보일러, 광물성 연료, 자동차, 전기기기, 의약품 순이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 기록
 - '25년 상반기에도 주요 수입 품목의 수입액 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항공기 부품(5.8%), 선박(130.7%) 품목만이 증가세 기록
 - 프랑스의 선박 품목(HS Code 89) 제1 수입상대국은 한국이며, 현재 중국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추세
 - * '25년 5월 누계 對한 선박 수입액 6억1,2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10.0%), 對중 선박 수입액 1억 6,0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567.1%)

□ 對한 교역 동향

- 상품 교역액 지속 증가,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
 - 한국-프랑스 간 상품 교역은 '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4년 사상 최고치인 약 136억 달러 기록, 4년 연속 100억 달러 돌파
 - '23~'24년 인플레이션과 불안한 국제 정세 영향으로 유럽 주요국 수요가 약세를 보이면서 對프랑스 수출 증가폭 작았으나 '25년 회복세

- 교역 규모

- (수출) '24년 對프랑스 수출액은 약 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0.3%)했으나, '25년 7월 누계액은 26.7% 증가한 약 34억 달러 기록
- (수입) '24년 對프랑스 수입액 역시 약 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1.0%)한 이후 '25년 7월 누계액은 11.2% 증가한 약 49억 달러 기록
- (무역수지) 對프랑스 수출보다 수입 규모가 더 큰 편으로, '24년에는 연간 -26억 달러, '25년 7월 누계 -15억 달러의 무역수지 기록

- 주요 수출 품목

- '25년 7월 누계 기준, 한국의 對프랑스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 자동차(전기차 포함), 의약품, 반도체, 화장품 등이며, 특히 선박(273.9%), 화장품(106.2%)의 수출액 대폭 증가
- 한국은 3년 연속 프랑스의 첫 번째 선박 수입 상대국이며, 선박류 전체 수입점유율의 54.2%를 차지, 다만 '24년 기준 동 품목 對중 수입이 684.0% 증가하면서 경쟁국으로 부상
* '24년 프랑스의 선박(HS Code 89) 수입액은 28억 달러로, 그 중 對한 수입액 15억 달러, 對중 수입액 4억 달러 기록
- 승용차(-62.3%) 및 기타 자동차(-47.9%)의 수출 부진은 프랑스의 EU 생산품 우대정책과 인플레이션, 불안한 국제 정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

한국의 對프랑스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5,524	0.3		총 수출	3,354	26.7
1	선박	1,585	27.7	1	선박	1,389	273.9
2	기타 자동차	701	7.1	2	기타 자동차	215	-47.9
3	승용차	289	-29.5	3	전기자동차	167	51.3
4	무선전화기	226	54.4	4	의약품	117	65.1
5	집적회로반도체	197	-7.5	5	집적회로반도체	92	-25.9
6	전기자동차	182	-67.7	6	화장품	79	106.2
7	기타 기계류	140	341.8	7	무선전화기	67	-41.8
8	자동차부품	122	10.4	8	승용차	66	-62.3
9	의약품	121	-35.2	9	자동차부품	61	-20.8
10	기타 기계류부품	120	249.9	10	제트유 및 등유	59	81.6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8월 기준)

- 주요 수입 품목

- '25년 7월 누계 기준, 한국의 對프랑스 주요 수입 품목은 항공기, 의약품, 가방, 주얼리 등으로 대체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특히 항공기(99.4%) 및 항공기 부품(79.8%)의 수입액 증가폭이 큰 편으로 나타남

한국의 對프랑스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8,148	1.0		총 수입	4,874	11.2
1	항공기	1,043	34.3	1	항공기	469	99.4
2	의약품	721	12.9	2	의약품	402	-8.5
3	가방	666	-3.7	3	가방	393	-2.3
4	화장품	502	-1.3	4	주얼리	295	36.0
5	주얼리	379	-7.5	5	화장품	292	-3.9
6	집적회로반도체	366	-23.9	6	집적회로반도체	197	-11.4
7	펌프	215	25.4	7	항공기부품	162	79.8
8	항공기부품	213	23.5	8	펌프	135	4.6
9	주류	191	-13.4	9	우라늄	134	0.0
10	개별소자반도체	170	8.0	10	낙농품	122	31.9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8월 20일 기준)

□ 프랑스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벨기에 진출전략 : 기업 A사(현지 J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한국의 독자적인 맛과 가치를 담은 전통차로, 일반적으로는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한국 전통차로 떠올리는 경향이 있으나, 본 기업은 인삼누룽지차, 꿀호박차 등 새로운 맛과 형태의 제품을 선보이며 전통차의 다변화를 이끌고 있음
 - 까다로운 국제 식품 인증을 전 제품에 모두 획득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능성,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가치를 극대화
 -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하여 저칼로리 및 건강 지향성을 확보한 점이 차별화 요소로 작용
- 필수 인증 : HACCP, FDA, 할랄, FSC 22000
- 성약 소요기간 : 6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주관 2024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에 방한 바이어로 참가
 - 바이어는 프랑스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K-뷰티 제품을 주로 유통해왔으나, 매장 방문 고객에게 한국 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소개하기 위해 전통차 수입을 희망함

- 해당 전시회에서 A사와 1:1 상담 진행한 뒤 KOTRA 파리무역관으로부터 통역, 이메일 및 유선 교신, 규정 검토 등 사후 밀착 지원을 제공받았으며, 이후 수출 계약으로 이어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프랑스로의 식품 수출에는 철저한 수입 규정 확인이 중요함. 프랑스의 까다로운 식품 수입 규정상 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통관이 불가능했으며, 이는 초기 협상 단계에서 주요 제약 요인이 되었음. 그러나 A사가 제품 성분을 스테비아로 신속히 대체하며 문제를 해결한 것이 성약에 결정적 역할을 함
 - 지속가능한 제품 철학이 성과로 연결됨. A사는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친환경 포장재(PLA티백), 기능성 성분, 건강 중심 레시피 등 유럽 시장에서 중시되는 요소를 충실히 반영함. 특히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는 티백 소재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프랑스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냄



성공 사례로 보는 프랑스 진출전략 : S사(현지 L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정유·화학 산업의 필수 부품인 가스 샘플링 실린더의 전체 제품군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고객 맞춤형 대응 가능
 - 용접이 없는 심리스(Seamless) 실린더 제조 기술 보유, 제품의 내구성·안정성·가스 누출 방지 성능에서 우위 확보
 - 자체 테스트 설비와 품질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신속한 납기 대응과 일관된 품질 유지 가능
 - 글로벌 인증(TPED, DOT, PED 등) 확보했으며,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OEM 공급이 가능하여 다양한 거래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 필수 인증 : TPED(EN1964-3), DOT USA 3A.3E, PED(Pressure Equipment Directive, 2014/68/EU)
- 성약 소요기간 : 1~2년
- 바이어 발굴경로
 - '23년 KOTRA 파리무역관의 지사화 사업을 통해 6개월간 바이어 발굴을 진행함
 - 다수의 진성 인콰이어리(Inquiry)를 발굴했음에도 즉각적인 수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25년 1월 프랑스 전기공사가 투자한 알제리 오일·가스 채굴 프로젝트에 해당 제품 수요가 있음을 확인함
 - 이후 교신 지원한 결과 최종적으로 수출 계약이 이어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정유·화학 산업 생태계는 다소 복잡하여 바이어 발굴 시 최종 고객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프랑스 내 대표적인 유통업체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오퍼해보는 것이 효율적
 - 프랑스 전기공사가 투자한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간접적인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에 성공. 중소기업이 대형 프로젝트의 부품 공급사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파리무역관을 통한 간접적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이 알제리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로 연결됨. 이는 B2B 기술 기반 기업이 타깃 국가 외의 제3국 프로젝트를 수출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TPED, DOT, PED 등 수출 상대국의 기술 및 안전 인증을 사전에 보유함으로써, 진입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함. 인증 획득에는 1~2년이 소요되므로 조기 준비가 필수적임

□ 주요 경쟁국 동향

- 프랑스의 수입 상대국 10위권 내 중국이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점유율 상승세
 - '25년 6월 누계 기준, 중국은 프랑스의 6번째 주요 수입 상대국으로, 수입시장 점유율 7.3% 차지, 수입액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수치 기록
 - 일본은 19번째, 한국은 22번째 수입 상대국으로, '25년 상반기 각각 0.7%, 12.6% 수입액 증가율 기록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전자기기 시장에서는 중국이, 자동차 및 부품 시장에서는 일본이 가장 큰 경쟁국으로 나타남

프랑스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중국	6.2	5.7	6.3	7.3
일본	0.7	0.7	0.7	0.8
한국	0.8	1.1	0.8	0.8
베트남	0.5	0.5	0.5	0.7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8월 기준)

다. 산업

□ 서비스업 비중 높은 구조로, 친환경 기반 제조업 확대 위한 정책 활발

- 자동차, 항공·우주,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산업 지원책 추진
 - '70년대 제조업이 국부의 20%를 차지했으나, 대규모 오프쇼어링, 인건비 경쟁력 약화, 노동력 감소, 경쟁 심화 등 요인으로 비중 지속 감소
 - '12년부터 '재산업화(Reindustrialisation)' 정책 추진,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대란 이후 해외 의존도 큰 주요 제조업 분야의 자립 강화 정책 추진 중
 - (에너지 호조)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70%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정부 차원 SMR(소형 원자로) 개발 중, EU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대규모 에너지 전환계획 일환으로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 중
 - (자동차 부진) GDP의 약 4.0% 차지, '24년부터 신차 등록 수가 크게 감소하며 시장 위기 장기화, 전반적인 경제 상황 침체와 친환경 정책 관련 자동차 시장 불안정성이 원인으로 꼽히며 정부의 내연 기관차 규제정책 지속 강화 추세
 - (항공우주 호조) GDP의 4.3% 차지, 팬데믹 이후 항공 수요가 증가한 한편, 탄소배출 감소 필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정부에서 저탄소 항공기·전자 비행기용 리튬이온 배터리 등 개발에 대규모 투자 중

최근 프랑스 주요 산업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2023년			2024년			2025년(상반기)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84	원자로	11.3	84	원자로	11.4	84	원자로	12.1
87	자동차	9.3	87	자동차	8.7	87	자동차	8.5
85	전자기기	7.7	85	전자기기	7.3	85	전자기기	7.2
88	항공기	6.1	88	항공기	6.2	30	의약품	5.8
30	의약품	5.8	30	의약품	6.0	88	항공기	5.8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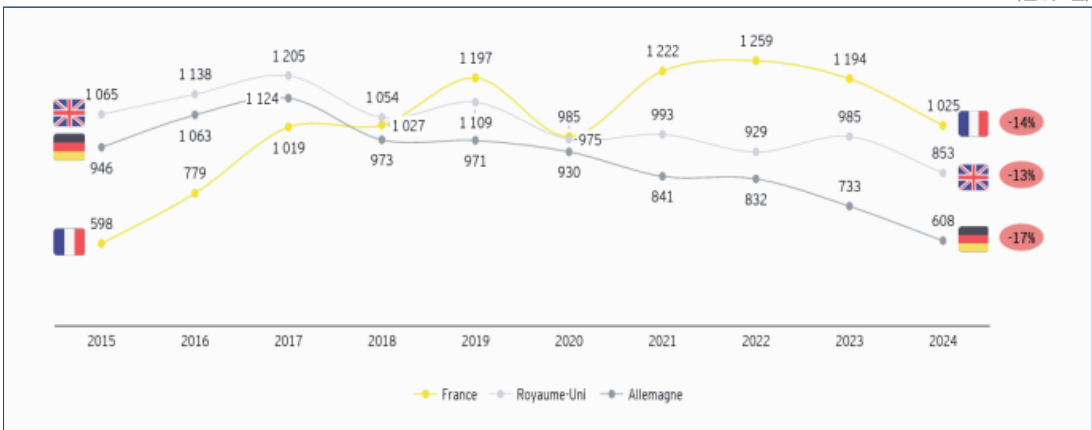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24년 프랑스 및 유럽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하락세 지속
 - '24년 프랑스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1,025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 '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 기록
 - 주요 감소 원인은 지정학적 긴장, 거시 경제적 상황, 무역장벽 영향과 프랑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분석되며, 유럽 전체적인 약세로 동기간 독일은 17%, 영국은 13% 감소세 기록

〈유럽 주요 3국의 해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추이〉

(단위: 건)



자료: EY(2025년 5월 15일 발표)

- 주요 투자국은 미국(12%), 독일(136건, -34%), 벨기에(83건, -7%), 영국(76건, -1%)이며,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탈리아만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76건 투자
* 증감률은 전년 동기 기준
- 대통령실 주도로 매해 해외 투자 유치 행사인 'Choose France' 개최, '24~'25년 행사에서 각각 150억 유로, 200억 유로 규모 신규 프로젝트가 발표됨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24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유치
 - 프랑스는 지리적 위치, 저탄소 에너지 등의 구조적 이점과 양자기술, AI, 국방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는 분석
 - 주로 제조업(415건, 전년 동기 대비 -22%), 에너지(74건, +14%), 농식품(68건, +11%) 분야 투자 유치 활발
* 제조업 투자는 주로 공장 개설 또는 증설 프로젝트에 해당
* 증감률은 전년 동기 기준
 - AI 또한 프랑스에 주로 투자되고 있는 분야로, '24년 총 41건의 프로젝트 유치
 - '25년 6월 프랑스 정부, AI 및 데이터 인프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1,700억 유로 이상 유치했다고 발표

프랑스의 주요 AI 투자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내용
유럽 최대 규모 AI 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와 공동 개발 • 300~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최대 AI 캠퍼스 설립 • 최대 1GW 용량의 데이터센터 건설 • 연구·교육프로그램 지원, 프랑코-UAE 챔피언 컨소시엄 개발 등
프랑스 북부 데이터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펀드인 브룩필드(Brookfield) 펀드 투자 • 북부지역에 1GW 규모 메가 사이트 포함, 다수 데이터센터 건설 • 총 150억 유로 규모 투입 • 데이터전송, 저장칩, 에너지 생산 등 관련 인프라에 50억 유로 투자
기업 주도 데이터센터 건립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투자은행(BPI), '29년까지 AI 생태계에 100억 유로 투자 • 오렌지(Orange, 통신), 탈레스(Thales, 항공), 프롤로지스(Prologis, 물류·부동산) 등 기업 총 30억 유로 규모 AI 산업에 투자 발표

자료: 언론보도 종합, KOTRA 파리무역관

- 프랑스 정부, '프랑스2030'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기반 산업 전환에 투자
 - '프랑스2030'은 '30년까지 핵심 미래기술(AI, 스마트 제조, 배터리, 반도체 등)을 육성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약 540억 유로 예산 투자 프로그램
 - 산업용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미래형 제조업을 위한 솔루션(Soutien a L'offre de Solutions pour L'industrie du Futur)' 프로젝트에 8억 유로 규모 투자 지원 중

프로젝트	예산 규모	집행기간	내용	운영기관
미래 제조업을 위한 솔루션 제공 지원 (Soutien a L'offre de Solutions pour L'industrie du Futur)	8억 유로	2021년~ 20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의 산업용 혁신 기술 (로보틱스, AI, 5G, 클라우드 등) 개발 산업 디지털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R(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ADEME(Agence de la Transition Ecologique)

□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등)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일본 전자장비 기업 Nidec의 현지 투자 확장 계획
 - 재생에너지 원천을 위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생산 기업
 - 프랑스 로슈-라-몰리에르(Roche-la-Molière) 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을 '25년까지 라 푸유즈(La Fouillouse) 지역으로 확장 이전 계획
 - 전 세계 탈탄소화 시장에서 전기화 기술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해당 분야 경쟁력 강화 목표
 - 총 1,700만 유로 투자 규모, 115개 일자리 창출 전망
 - * EY, 2025 프랑스 해외 투자 유치 자료집
- 대만 배터리 기업 Prologium의 연구개발 센터 개소
 - '24년 파리-사클레이(Paris-Saclay) 지역 연구개발 센터 개소 발표, '25년 예정
 - 대만 외 지역에서 설립되는 첫 번째 연구개발 센터로, 유럽 시장에 적합한 리튬 세라믹 배터리 기술 개발 목표
 - 파리-사클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전반에 걸쳐 지원 제공
 - * EY, 2025 프랑스 해외 투자 유치 자료집

□ 프랑스의 對한 투자 현황

- '24년 프랑스의 對한 투자는 총 48건, 8억 5,043만 달러 규모
 - '23년의 53건, 11억 7,504만 달러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
 - 서비스업 분야가 가장 많은 31건 차지, 7억 310만 달러 규모 기록
 - 다음으로 제조업 분야가 16건, 1억 1,398만 달러 기록했으며, 그중 화공 분야 2,667만 달러 기록
 - 반도체 수요와 인공지능 중요성 커지면서, 한국 산업용 가스 시장에 글로벌 기업의 투자 규모 확대 추세
 - * '25년 8월 에어리퀴드, 국내 산업용 가스기업 DIG에어가스 인수합병, 28억 5천만 유로 투자
- 대표적인 對한 진출 기업으로는 에어리퀴드(Air Liquide), 에어버스(Airbus), 악사(AXA), 다쏘그룹(Dassault), 빈치(Vinci), 발레오 바이엔(Valeo Bayen), LVMH, 탈레스 인터내셔널(Thales International), BNP 파리바 그룹, 데카틀론(Decathlon) 등이 있음
-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 진출

- '24년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26.1% 감소한 3억 5,000만 달러
 - 투자액은 증가했으나 신규 법인 수는 15개로 지난 3년 내 가장 낮은 수치
 -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1억 3,00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으며, 이어 정보통신업(1건, 8,800만 달러), 금융 및 보험업(1건, 5,700만 달러), 제조업(4건, 5,100만 달러) 순
 - 대표적인 진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아모레퍼시픽, 제일기획, SPC그룹,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화솔루션 등이 있음

한국의 對프랑스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투자금액	346	-70.1%	474	+36.9%	350	-26.1%	16	-88.0%
신규 법인 설립 건수	28	+27.2%	17	-39.2%	15	-11.7%	4	-20.0%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5년 8월 기준)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 기업 E사, 서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법인 설립

- (기업 정보) E사는 이차전지 및 EDLC용 전해액과 고성능성 첨가제를 개발 및 생산하는 전해액 전문 회사
- (성공사례) 프랑스 내 국내 진출 기업으로 첫 생산법인 설립, 프랑스 주요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
 - 프랑스 북부지역 내 생산법인 투자 결정으로, '24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주재 투자가 초청행사 'Choose France'에서 26개 주요 투자 프로젝트 발표 시 소개됨
 - '25년 1분기부터 전해액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 8월과 9월에 각각 구매주문서(PO) 취득. 기존 유럽 기가팩토리 공급에 이어 신규 기가팩토리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며, 유럽지역 내 공급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5년 공장 건설 계획 진행 중
- (시사점) 프랑스 2030 정책, 유럽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정책, 탄소배출 규제 강화 정책 등이 맞물려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향후 진출 확대가 기대됨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배터리 전문 기업 L사, 프랑스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한 배터리 재활용 JV 설립

- (기업 정보) L사는 글로벌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자동차전지, 소형전지, ESS전지 등을 생산하는 기업
- (성공 사례) 한국과 유럽 기업이 유럽 내 리사이클 합작사를 세운 첫 사례
 - 글로벌 배터리 기업인 L사는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기업 D사와 유럽에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을 설립하기로 발표. 가격 및 수급 변동성이 큰 배터리 핵심 원재료 조달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여 공급망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사용 후 배터리와 공정스크랩을 파·분쇄해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인 블랙매스를 만드는 전처리 공장 설립 목표, '26~'27년 프랑스 발두아즈(Val d'Oise) 지역 내 지분율 각 50%로 JV(합작법인) 형태로 진출 예정
- (시사점) EU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는 사례이며, 현지 기업과의 합작법인을 통한 프랑스 및 유럽 시장 진입 및 진출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전망됨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엄격한 고용·해고 규제, 복잡한 노동법과 높은 사회보장세 부담 등
 - 고용 형태 규제에 있어 고용계약 법적 요건이 엄격하고, 해고 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정당한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서면 통보 등 필수적
 -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초과 시 시간외수당 지급이 의무적이며, 유급휴가는 연 5주 이상, 노동시간 유연화 어려운 편
 - 높은 사회보장세와 복리후생제도로 기업의 의무 부담 큰 편
 - 비EU 국적자의 경우, 취업비자 발급이 복잡하고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림
- 외국인 투자규제 강화 추세로 사전 허가 분야 추가, 투자자 규정 범위 확장
 - '20년 4월부터 프랑스 전략산업 확대 및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비유럽인)의 투자 제재 강화 발표, 허가 의무화 투자지분율을 25%에서 10%로 축소
 - 사전 허가가 필요한 에너지·통신·농업·우주·항공·교통·수자원·의료 등 기존 프랑스 전략산업에 바이오테크 분야 추가
 - '23년 1월, 이 방침의 기한 제한 없는 영구적 적용 발표

2. 유망 산업

가. 전력 기자재

□ 국토 전반의 전력망 개발 계획으로 송배전망 기자재 수요 증가

- 프랑스 정부, 1,000억 유로 규모 전력망 개선 투자 발표('25년 2월)
 - 프랑스의 송전망은 노후화로 인해 부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
 - * 공중 송전선(OHL)의 27% 건설된 지 60년 초과, 약 6만 5,000개의 송전탑 70~105년 초과
 - 기후변화 및 기상학적 여파에 대응 가능한 시설 강화 필요
 - 송전 네트워크 일부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에 240억 유로 투입
 - * '40년까지 2만 3,500km 송전선, 8만 5,000개 철탑, 통신 및 제어 시스템 개선, 400개 변전소 신설 등
 - 저탄소 생산시설(재생에너지·원자력)과 전력소비 연결망 구축에 530억 유로 투입
 - * EPR2 원전 발전소 연결망, 육상 재생에너지 연결망, 해상 연결망 등으로 국가의 전기화 및 지역 재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주요 전력 생산지-소비 중심지 간 연결 가능한 초고압 전력망 운영 최적화에 165억 유로 투입

프로젝트명	투자 규모	추진 주체 (정부·EU·민간)	발주처	진행 단계	프로젝트 일정	한국 기업 기회
SDDR (프랑스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약 1,000억 유로	공공/국가 주도 프랑스 전력망 운영사 RTE, 프랑스 정부	RTE가 전체 계획 제시, 각 지역별로 발주 예상 ('25년 10월 현재 공개 자료 제한적)	공개 검토 단계 (Consultation Publique)	'25~'39년	ESS·송전설비 기자재 등 수요 증가 예상

- 주요 전력 기자재 對한 수입 동향
 - 주요 기자재 對한 수입 품목은 변압기, 전동기, 보드·패널, 콘솔 등
 - 주요 8개 품목의 '24년 對한 수입액은 약 7,000만 달러로, 변압기·전동기·발전세트 및 회전 변환기 등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

프랑스 對한 주요 전력기자재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	수입액			증가율	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3/'24년	2024년
1	8504	변압기·정지형변환기와 유도자	7	9	18	84.5	0.4
2	8501	전동기와 발전기	11	11	16	41.6	0.8
3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	12	9	12	30.8	0.5
4	8544	절연전선·케이블	28	21	8	-61.3	0.1
5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1,000볼트 이하)와 광섬유·케이블용 커넥터	22	30	12	-58.5	0.3
6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0	0	1	>9,999.0	0.3
7	8547	전기기기용·절연용 물품	3	7	0.8	-88.3	0.9
8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1,000볼트 초과)	0.1	0.1	0.2	48.4	0.1
합계			86	91	70	-	-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7월 기준)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프랑스 전력시장 주요 기업

- 전력시장은 주로 국영 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00년대 초부터 EU의 전력시장 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인 민영화와 경쟁이 도입되는 추세
- 지분의 96%를 정부가 소유한 EDF가 가장 큰 전력 기업으로,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이며 관련 부품의 주요 구매자이자 최종 소비자
- 'ARENH(Accès Régulé à l'électricité Nucléaire Historique)' 제도로 경쟁사가 EDF의 전력을 일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전력 요금 통제

프랑스 송배전 기자재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Nex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년까지 청정에너지 전환과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재무지침 발표('24년 11월) · 전력망 운영사 RTE와 '28년까지 5,200km의 지중 케이블 공급 계약('24년 11월)
Schneider Electr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변압기, 자동 개폐기, 원격 감시 시스템 등 지능형 송배전 솔루션 제공 · AI 발전 지원 위해 '27년까지 미국 에너지 인프라에 7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 발표('25년 3월)
Alst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내 생산능력 향상 위해 1억 5,000만 유로 이상 투자 발표('25년 4월)
SA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60여 개국에 제품 공급, 매년 1만 5,000개의 변압기 생산
Brillard & Cho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압(HT) 및 초고압(THT) 송전탑 엔지니어링 및 제조 · 프랑스 RTE, 벨기에 ELIA, 스페인 INABENSA 등이 주요 고객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파리무역관 정리

□ 향후 전망 및 기회요인

- 송전망 개발 계획에 따라 전력망 인프라 수요 대폭 증가 전망
 - '39년까지 400개 이상의 신규 변전소가 건설될 계획으로 변압기·개폐기·보호장비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해당 품목의 對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 유지·확장 필요
 - 동 분야 진출에는 프랑스 전력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 EU 기술 표준과 인증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

나. 재생에너지(해상풍력) 기자재

□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에 따라 기자재 시장 확대

- '22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 발표
 - '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총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33% 목표
 - (해상풍력) '50년까지 해상풍력 단지 50개 건설 40GW 규모 구축
 - (육상풍력) '50년까지 40GW로 설비용량 2배 확대
 - (태양광) '50년까지 발전설비 설치 용량 100GW 이상 약 10배 확대

구분	목표 연도	주요 목표	담당 기관
재생에너지 전체	'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33%로 확대 • '90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 '12년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 20% 절감 	에너지 전환부, ADEME, RTE
해상풍력	'5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발전량 6.8GW 목표(해상풍력단지 8~10개), 이후 '40년대 본격 확충 * '25년 기준, 약 1.5GW 가동 또는 건설 중 • '50년까지 해상풍력단지 50개 건설, 발전량 45GW 목표 • 부유식(Floating) 기술 확대 	RTE, EDF Renewable
육상풍력	'5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설비용량 약 20W → 40GW로 2배 확대 	RTE, ADEME
태양광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35~40GW 목표 • '50년까지 128W~160GW(현재의 약 10배 확대) 	EDF Renewable, Engie

- 해상풍력 시장 동향

- 프랑스는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해안선 보유(약 3,500km)한 반면, 해상풍력발전은 유럽 타 국가 대비 저조한 편
 - * '22년 기준 유럽 내 총 5,800여 개의 해상풍력 터빈 중 프랑스는 27개 보유
- 정부는 총 115억 유로 규모의 3.5GW 해상풍력단지 7개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
- '24년 기준 완전가동 중이거나 연결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3개(1,500MW)로, '35년까지 약 15개의 해상풍력 단지 추가 건설 예정

- 주요 기자재 對한 수입 동향

- '24년 기준 프랑스의 주요 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액은 약 80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수치
- 가장 큰 규모의 수입 장비는 에너지 저장기기이며 최근 3년 연속 증가세
- 한국은 프랑스의 아홉 번째 에너지 저장기기 수입 상대국으로, 이 품목의 주요 경쟁국은 중국, 일본, 폴란드, 독일, 스페인 등

프랑스 주요 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품목명	2022년	2023년	2024년	'24년/'23년 증감률
8507	에너지 저장	3,257.03	4,359.47	4,863.25	11.5
8541	태양광 디바이스	2,375.38	2,309.47	1,947.00	-15.1
8412	엔진과 모터	1,130.33	1,266.33	1,213.49	-4.1
8905	해상풍력 설치선	1.61	204.40	10.82	-94.7
합계		6,764.35	8,139.68	8,034.57	-1.3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8월 기준)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해상풍력 주요 부품 공급망

- 해상풍력 주요 부품은 터빈을 구성하는 나셀과 블레이드, 구조물에 해당하는 타워, 파운데이션 등으로 구분
- 프랑스 터빈 시장 내 주요 기업은 지멘스 가메사(Siemens Gamesa)와 베스타스 윈드(Vestas Wind)이며, 유럽 설치 터빈의 92%를 유럽 기반 기업들이 공급
- 프랑스는 해상풍력 발전시설 공급망의 대부분을 자국에 보유하고 있음

프랑스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Chantiers de l'Atlanti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풍력 설비의 하부 구조물 제작 '24년 5월 생나제르 조선소 확장, 500명 신규 직원 채용
LM WindP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력 터빈 블레이드 제조 분야의 선두기업 '17년 GE Renewable Energy에 인수되어 현재 GE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음
Siemens Game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상 및 해상풍력 터빈 설계·제조·설치·유지보수 서비스 등 '17년 Siemens WindPower와 Gamesa Corporacion Tecnologica의 합병으로 탄생
Prysmi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와 통신 부문의 전력 및 광섬유 케이블 생산 특히 해상풍력 발전소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고전압 케이블 분야 선두기업
Verg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력 터빈 전문 설계 및 생산 풍력·태양광·하이브리드 에너지 솔루션 제공, 전 세계 60개국 프로젝트 운영
DORIS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풍력·신에너지(수소) 등 재생에너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및 자문 '00년대 초반부터 영국 해상풍력 산업 참여, 전 세계 17국 60개 이상 프로젝트 수행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파리무역관 정리

□ 향후 전망 및 기회요인

- 정부 차원의 해상풍력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기자재 수요 증가
 - 전력 생산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전망
 - 주요 핵심부품인 터빈 제조사는 유럽 기반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프랑스는 발전시설 공급망의 대부분을 이미 보유한 상황으로 보이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세부 부품 시장 수요 증가 예상
 - 수주시장의 주요 기업 정보를 파악하고 부품별 인증을 갖추어 기회 모색 필요

다. 원자력 발전

□ 프랑스는 원자력 강국으로, 신기술 원전 분야에서 상호 협력 기회 발생 가능

- 프랑스 원전 산업 현황
 - 미국 93기, 중국 57기 다음으로 많은 56기의 원전 운영 중이며, 이 중 50기(89.3%)는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19기는 40년 초과)
 - '23년 총 발전량 중 원전이 64.7% 차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
 - * 원전 비중 세계 순위 : 2위 슬로바키아(61%), 3위 헝가리(48.8%), 11위 한국(30.7%)
 - * IAEA(국제원자력기구)
 - '23년 2월 정부 발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르면 '50년까지 EPR 2세대 원자로 총 14기(6+8기) 건설, 현재 운영 중인 원전 56기 수명 60년 이상 연장 검토, 건설공기 단축, SMR(소형원자로) 및 수전해 설비 도입 등 계획

• SMR 투자 및 기술 현황

- '21년 10월 발표한 France 2030 미래 산업 투자 정책에 SMR 개발 계획 포함되어 '30년 첫 호기 건설 목표로 10억 유로 지원 중
 - * 프랑스는 폐순환 핵연료주기 완성을 목표로 고속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SMR 개발 역시 고속로 위주로 선정됨
- (NUWARD(Nuclear Forward) 프로젝트) 혁신기술 적용 설계 재검토 및 '24년 7월 영국 입찰 포기 발표, 파트너 기업 중 TechnicAtome은 '24년 12월 프로젝트 탈퇴 발표, '25년 1월 새로운 설계로 프랑스 국내 프로젝트 개발 재개
- (4세대) 원자력 판무관은 11개 기업에 대한 평가 후, 대부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용융염원자로 개발 일정이 무리라고 평가('24년 12월)
 - * '23년 4세대·핵융합 신기술 11개 기업 선정, 1단계로 약 1억 유로 지원
- (EU 산업동맹) 프로젝트워킹그룹(PWG) 위한 9개 기술을 선정하였으며 프랑스 프로젝트로는 Nuward, Newcleo, Thorizon 3개 선정, 추후 추가 선정 예정

프랑스 SMR 지원 프로그램 현황

구분	프로젝트	비고
핵분열	3세대 EDF Nuward SMR	1개
	4세대 고속나트륨, 납냉각로, 고속용융염, 열원자로 기술 등	9개
핵융합	자기구속, 관성구속 기술	2개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 프랑스의 주요 원전 기자재 수입 동향

- '24년 프랑스의 주요 원전 기자재 수입액은 약 29억 9,689만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3.4% 감소
- 주로 액체펌프, 냉각펌프 품목의 수입액이 23억 달러 규모로 대부분이며, 주요 수입 상대국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주변국

프랑스 주요 원전 기자재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HS Code	품목명	2022년	2023년	2024년	'24년/'23년 증감률
8413	액체펌프, 냉각펌프	2,315,012	2,436,887	2,309,947	-5.2
8402	증기발생기	62,121	69,267	57,172	-17.4
8406	증기터빈	68,923	52,020	53,510	2.8
8401	원자로	555	544	577	6.2
	합계	3,001,216	3,102,240	2,996,894	-3.4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8월 기준)

- 프랑스의 對한 원전 기자재 수입 동향

- '24년 對한 원전 기자재 총 수입액은 약 1,486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5% 증가

- * 특히 프랑스의 주 수입 품목인 액체펌프, 냉각펌프(HS Code 8413)는 전년 대비 약 23.0% 증가

프랑스 對한 주요 원전 기자재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HS Code	품목	수입액			증가율	비중	순위
		2022년	2023년	2024년	'23년/'24년	2024년	2024년
8406	증기 터빈	165	216	545	152.4	1.0	12
8402	증기 발생기	198	16	38	133.3	0.0	24
8413	액체펌프, 냉각펌프	18,865	11,462	14,551	23.0	0.6	20
합계		19,228	11,694	14,686	25.5	0.6	19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8년 기준)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국영 기업인 EDF가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지배적 위치 차지

- 지분의 96%를 정부가 소유한 EDF가 가장 큰 전력 기업으로,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이며 관련 부품의 주요 구매자이자 최종 소비자
- 자국 시장의 원자력 관련 재료, 부품, 장비의 주요 구매 기업으로 다양한 장비 제조업체가 EDF의 우선 공급업체가 되기 위해 프랑스에 진출하고 있음
- 현재 SMR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원자력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Framatome, Orano, Vinci Energies 등의 기업에 대부분 위탁 중

프랑스 원자력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E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WARD 프로젝트(SMR) 진행 • 발전소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그랑 카레나주 프로그램) • 노후 발전소 해체 • 신규 EPR 2세대 원전 건설 등
Framat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F는 GE Steam Power의 원자력 사업 부분 인수 후 EDF 자회사인 Arabelle Solution 설립하였으며('24년 5월), 프라마툼 CEO가 이사회 의장 겸직 중 • 사고저항성연료(ATF), 스위스 과스겐 원전에서 검증 시험 중('24년 11월) •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러시아 노형 원전 핵연료 공급 계약 체결('24년 7~10월)
Orano (구 Are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남부에 약 2조 7,000억 원 규모 농축공장(GBII) 증설 프로젝트 착공('24년)했으며 '28년 초기 생산 목표(한국수력원자력 약 2.5% 지분 보유) • EDF에서 사용된 핵연료는 Orano가 보유한 습식저장조에서 보관 운영되며, EDF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운영 프로젝트 인수함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As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6월 스페인 IDOM, 슬로바키아 VUJE와 함께 원자력 동맹 NUCEAL 설립하여 EDF의 원자력 사업 진출 지원 중 • '21년 6월 Naarea와 협력하여 4세대 SMR 프로젝트 관리, 인허가, 엔지니어링 서비스 관련 협력 '25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 * Naarea : '21년 프랑스 낭트에 설립된 SMR 스타트업, 초소형 SMR인 XAMR 개발 중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파리무역관 정리

□ 향후 전망 및 기회요인

- 프랑스는 원자력 경험과 기술면에서 독립적인 상태지만, 부품시장 진입 및 SMR 등 4세대 원전 분야에서 기술협력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일반적으로 제조 장비나 시공 사양이 매우 정확하게 규정되며, 특정 인증이 필요한 부품의 경우 시장은 좀 더 개방되어 있음
 - 원전 운영 장비에 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한 편으로, 구매자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쌓아온 자국 기업을 선호하는 분위기
 - SMR 기술협력의 경우,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주요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기술협력 추진 필요

라. 방위 산업

□ 세계적인 방위 산업국으로,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방산 예산 확대 추세

- 자국 내 공급망 갖추고 있으나, 산업 구조 변화로 신규 기술 수요 증가
 - 핵무기부터 항공기, 잠수함, 미사일까지 자국 군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장비를 자율적으로 생산·공급 가능한 산업 역량 보유
 - 최근 국가 외부 위협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국가 간 세력 경쟁 치열해지면서 기술 발전 가속화 추세
 - '25년 7월 발표된 국방 지출 추가 증산 계획에 따르면 '26년 35억 유로, '27년 30억 유로 추가 투입 예정이며, '24~'30년 군 예산은 4,133억 유로로 책정
 - 사이버, 우주, 해저 등 신규 분쟁영역 출현 고려해 예산 확대
 - * 우주 역량 재정비 및 강화에 60억 유로 투입, 사이버 예산 3배 증가, 해군의 미개척 공간 감시 능력 확대 등
- 최근 수출입 동향
 - '20~'24년 주요 무기 수출국 중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기록
 - 동 기간 프랑스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9.6% 차지, 65개 국가에 공급
 - * '15~'19년 대비 11%, '10~'14년 대비 72% 증가한 수치

- (수출) 프랑스의 주요 수출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35%)이며, 중동(28%), 유럽 국가(15%) 순
- 주로 그리스 및 크로아티아에 전투기 공급,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對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증가
- (수입) 수입국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주변 유럽국이며, '24년 수입액은 2억 4,3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HS Code 93기준)
- 한국은 35번째 무기류 수입 상대국으로, '24년 약 25만 8,000달러 수입

*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Global Trade Atlas('25년 7월 기준)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약 2,000여 개의 국방 기술 및 방위 산업 기업이 있으며, 중소기업이 다수
 - 시스템 통합 업체, 장비 업체를 비롯하여 방대한 전문 협력업체로 생태계 구성
 - 연구기관 또한 군사 장비 설계·생산·유지보수·해체에 기여
 -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기술집약적인 것이 특징
 - 정부가 대부분의 대규모 방위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등 긴밀한 관계 형성

* 프랑스 방위 산업 기업 리스트 <https://gicat.com/en/annuaire/>

□ 향후 전망 및 기회요인

- 지정학적 위기로 정부 주도 투자 증가, 기술 지형 확장 중
 - 프랑스 국회, '24~'30년 군사계획법(LPM, 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통해 7년간(~'30년) 군 예산 4,133억 유로 책정
 - * 이전 군사계획법에 따른 예산 대비 약 1,180억 유로 증액(+40%)
 -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정부의 '전시경제(Economie de Guerre)' 기조에 따라 방산 분야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예산 확대, 생산 체계 개편 본격화
 -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위협 영역 확대로 대기업, 디지털 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 기술 기업의 방위 생태계 진입 증가
- 유럽 차원의 초국가적 방산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기술 파트너나 하도급 참여 기회 확장 추세
 - 공동 개발·생산, 기술 파트너십 형식의 진출 또는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B2B 진입 고려 가능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FTA 활용 등 협력 유망 분야

- '15년부터 완전 발효된 한국-EU FTA로 대다수 품목에 관세 미적용

한국-EU 양허 품목

양허 유형	EU의 대한민국 양허 품목(기존 관세율)
즉시('11년 7월~)	•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아세탈수지(6.5%),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13년 7월~)	• 1,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4~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항공기(7.5~7.7%), 기타 신발(16.8%), 자전거(15%), 주방용 도자기 제품(12%) 등
5년('16년 7월~)	• 1,500cc 이하 소형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화물자동차(22%), 칼라TV(14%), TV 카메라 및 수신기(14%),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기 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등

자료: 관세청

- 한국-EU 디지털 통상 협정(DTA) 토대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망
 - '23년 10월 첫 DTA 협상 개시 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타결
 - (디지털 교역 원활화) 전자무역문서 효력 인정, 양국 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위한 노력, 국경 간 전자 지급 지원 및 표준 채택 등을 위한 협력 등
 - (소비자 및 비즈니스 신뢰) 전자상거래 사기 방지 및 소비자 구제 위한 보호조치 도입, 스팸 메시지 수신자 사전 동의 및 수신 거부방안 마련, 사이버 보안사고 대처 위한 국가 간 협력 등
 -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 채택·유지, 국경 간 정보 이전 시 개인정보보호 위한 조치 채택
 - (협력) 양자 무역·투자 관계에서의 중소기업 중요성 인정하여 관련 정보 및 우수 관행 공유, 양국의 디지털 포용 관련 우수 관행 공유 등



온라인 입점 성공 사례

- 개요
 - 수소 미스트기 제조 기업 B사는 첨단 바이오 필터기술을 활용한 생물학적 정수 기술로 타사 대비 더욱 정화된 수질을 제공
 - KOTRA 파리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통하여 프랑스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동 분야의 프랑스 바이어사 L사에 수출 성공
 - 이후 L사가 신규 개점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며 시장 확대
- 내용
 - B사는 고효율 에너지 및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과 동시에 스마트 모니터링을 활용한 필터 교체시간 알림 시스템을 제품에 내장하여 보다 혁신적인 수질 정화 솔루션 제공에 성공
 - '21년 KOTRA 파리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여 프랑스 L사에 수출 시작, 이후 L사가 온라인 쇼핑몰을 개장 하는 등 온라인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B사 또한 이를 온라인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
 - 판매부터 보증, 교환, 필터 교체까지 가능한 전문 쇼핑몰에 B사의 수소미스트가 미용·생활 가전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프랑스 수출 1만 달러 달성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현재 프랑스의 온라인 뷰티·헬스케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며, 온라인 유통망은 초기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단순한 보습 기능에 머무르는 기존의 미스트 제품에 수소 분사라는 L사만의 독자적 혁신 기술로 차별성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
 - 여기에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는 바이어사와의 협력으로 프랑스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접점을 창출할 수 있었음

□ (G2G)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수교 140주년 연계 첨단산업 부문 협력 강화 추진
 - '26년 6월은 양국 통상조약 체결 14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여 양국 정부는 외교,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다방면의 교류 확대 추진
 - 특히, 양국은 최근 첨단기술·AI·배터리·항공·우주·국방·위성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중으로, 다양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파트너십을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
 - * 마크롱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통화에서 "AI·우주·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 실현" 희망 표명('25년 9월 11일)
 - 양국 간 첨단 분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협력을 관련 소재·부품·장비 부문 공급망 진입 기회로 연계 및 확장 가능



항공부품 시장 진출 성공 사례

- 개요
 - 프랑스 항공·우주 기업의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수요 포착 후 국내 기업과의 매칭 행사 진행
 - 행사 개최로 해당 분야의 국내 기업별 특성을 파악하고, 유관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여 수출 성과로 연결
- 내용
 - KOTRA 파리무역관은 프랑스 항공·우주 기업 Safran의 對한 소싱 및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지원해옴
 - Safran과 우리 기업 간 협력 기회 확대를 위해 파리무역관은 '24년 Safran 360 행사를 개최하여 항공·우주·방위 분야 44개 기업과 Safran 간 상담 54건을 진행, 이후 후속 교신을 지원함
 - 이후, 파리무역관은 Safran 360에 참여했던 Y사의 2025 파리 에어쇼 참가를 지원하며 전시회 참가 바이어 대상으로 홍보와 상담 주선을 진행함
 - 특히, Airbus의 벤더기업 중 한 곳과의 상담을 주선하였으며, 현장에서 견적요청서(RFQ) 접수에 성공하였고, 후속 교신을 통해 제품 선적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 결과 수출 성약 1만 6,000 달러 달성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항공 산업은 진입장벽이 극도로 높은 분야로, 수년간의 품질 보증과 납기 실적 없이는 글로벌 OEM 공급망 진입이 어려운 편
 - 그럼에도 불구하고 Y사가 Airbus 부품 공급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미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과 생산능력, 재무 안정성 등을 입증했기 때문
 - RSP(Risk & Share Partner)로서 설계·개발 단계부터 비용과 리스크, 매출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급업체를 넘어 프로그램 파트너급 지위를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
 - 우리나라 항공부품 기업이 글로벌 주요 프로그램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성공 모델로 평가됨

나. 공급망 협력

□ 반도체용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제논 등) 관련 공급망 협력 유망

- 프랑스의 희귀가스 생산·정제 역량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활용한 협력 가능
 -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대규모 공기분리장치(ASU, Air Separation Unit) 및 정제능력을 보유한 산업가스 기업(Air Liquide)을 보유,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 공급의 핵심 역할 수행 가능
 - 한국은 희귀가스 수요가 큰 세계적 반도체 생산국으로, ASU 기반 희귀가스 정제 역량을 보유한 프랑스와 높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희귀가스 재활용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초저온 CryoConcept 기술 관련 연구 협력으로 액체수소 초저온 저장 및 운송 기술 개발 협력도 유망



공급망 협력 성공 사례

- 개요
 - 초고순도 희귀가스 생산·정제 역량을 갖춘 프랑스 기업 에어리퀴드(Air Liquide)가 충남 천안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강화 기대
 - 충남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주변국과의 공급망 협력 가능성 확대
- 내용
 - 에어리퀴드, 충남 천안에 희귀가스 정제 공장 완공 발표('25년 6월)
 - 반도체 제조를 위한 크립톤과 제논 정제 시설이자 극저온 공학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건설된 공장으로, 지역 내 전자 산업 분야 고객에게 크립톤, 제논 등 희귀가스 공급 가능
 - 독자적인 기술과 초저온 공학 분야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엄격한 요구사항인 초고순도 기준 충족
 - 천안 공장은 주요 국내 반도체 기업 및 아시아 전역의 다른 고객사와 가까이 위치하여 물류 측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희귀가스 공급망 강화와 효율적인 공급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에어리퀴드는 반도체 고객 인접 생산으로 초고순도를 유지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옴
 - 천안 공장은 한국 팹 생태계와 직접 연동되는 대표적인 현지화 투자라고 볼 수 있음
 - 한국 거점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반도체 허브와 연계되어 수요 확대 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함
 - 장기공급계약, 공동 품질 규격 설정, 국가 간 전략 재고 연계 등으로 협력 확대 가능



Ⅲ.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1
2. 진출전략	43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구조.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22년 재선 후 친EU·친기업 정책을 추진
 - * '24년 조기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다극화된 의회 구성으로 정책 추진에 제약 심화
- 재정 적자 축소 압박에 따른 긴축 재정 필요성으로 국정 불안정 심화
- 국회의 총리 불신임안 통과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 '25년 하반기 조기총선 등 다양한 국정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됨



경제(Economic)

- EU 차원의 '초과 재정 적자 시정 절차(EDP)' 대상국
 - * '24년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13%로 유로존 내 그리스·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음
- 재정 긴축 기조에 따라 공공조달 예산 축소, 정부 보조금 의존도 높은 산업의 프로젝트 지연 및 축소 가능성 고조
- '25년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민간 소비 정체, 기업 투자 감소 후 '26년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회복 전망
 - * '25년 GDP 성장률 약 0.6%, '26년 성장률 약 0.9~1.2% 전망



사회문화(Social)

- '24년 인구 6,860만 명, 출산율은 약 1.62명으로 유럽 내 높은 편
-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로, '24년 기준 60세 이상이 인구의 25%, '50년 인구의 30% 이상 도달 전망
- 자유시장경쟁제임에도 사회보장제도 및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정부 개입 많은 편
- 책임감 있는 소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편으로, 소비자 보호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기업 이미지와 투명성, 환경적 책임이 중요
- 한류 문화 인기 지속 중으로, K-뷰티는 현재 프랑스 뷰티 산업에서 가장 성장 중인 틈새시장으로 평가됨



기술(Technological)

- 디지털 혁신 및 스타트업 육성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Station F'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음
- AI 기술에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 중이며, 핀테크·딥테크 스타트업 성장세 뚜렷
-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원전, 우주항공, 방산 분야 기술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SWOT 분석

강점(Strength)



- 프랑스 정부의 친환경 전환 산업에 부합되는 기술 경쟁력 보유(IT, 배터리, 전자, 반도체 등)
- 원자력, 방산, 에너지 등 양국 간 전략산업 일치로 혁신 기술 교류 가능성 높음
- 다수 핵심 기업 EU 역내 기 진출

약점(Weakness)



- 일부 산업 분야(전자, 자동차, IT)를 제외하면 브랜드 인지도 대체적으로 낮은 편
- 언어, 문화,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
-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 부족으로 초기 진입장벽 존재

기회(Opportunity)



- K-컬처의 인기로 코스메틱을 비롯한 소비재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전력망 현대화, 방위 산업 투자로 관련 산업 진입 기회 확대
- EU 전역으로의 시장 확대 가능성 높은 편

위협(Threat)



- 다극화된 여소야대 의회 구성 및 정부 지지율 약화로 국정 불안정성 심화
- 재정 적자 심화, 긴축 재정으로 공공 투자 축소
- 보호무역주의로 EU 역내 생산 기업에 유리한 기준 적용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친환경 전환 및 전력망 현대화 등 프로젝트 참여
- 양국 공동 관심 산업 분야(원자력, 방산, 에너지 등)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추진 등



첨단기술과
현지 정책 수요 연계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역내 기 진출 기업의 공급망, 파트너십 활용해 현지 진입장벽 최소화
- 친환경 기술, 스마트 솔루션 등으로 환경 규제 및 노동 비용 부담 완화



기술력과 파트너십으로
협력 강화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온라인, SNS 마케팅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강화
- 프랑스 유통망, 리테일 기업과 협업으로 네트워크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



적극적인 현지화로
시장 확장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프리미엄 시장 포지셔닝 및 차별화로 경쟁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 심화 대응
- 정치적·재정적 위기 상황을 전환점으로 보아 단기 생존 전략과 중장기 경쟁력 동시 설계



리스크 분산으로
경쟁 심화 대응

2. 진출전략



전략 ①

현지 송배전망 투자 계획과 연계해 기자재 수요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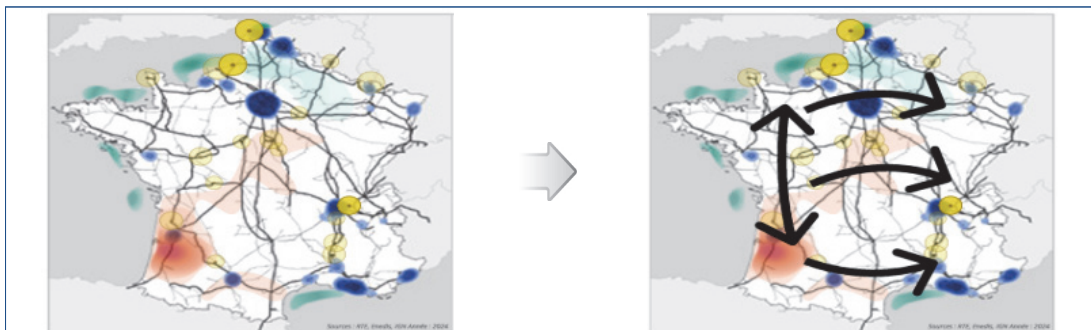
전략 수립 배경

- 프랑스 송전망 공사(RTE) 전략투자계획 발표('25년 2월)
 - 프랑스 정부, '40년까지 15년간 고전압 및 초고압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최적화된 전략 제안
 - '50년까지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전기 비중을 50% 이상 늘리기 위해 총 1,000억 유로 규모 운영전략 발표
- 제조업 기반의 전력망 인프라 수요 대거 증가 전망
 -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사용 가능 분야(IT, 전자, 배터리 등) 활용, 디지털·스마트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필요

□ 현지 동향

- 프랑스, 경제의 탈탄소화 목적에 맞춰 전기 비중 강화 위해 전 국토 전력망 최적화 전략(SDDR) 진행 중
 - '40년까지 약 1,000억 유로 규모의 송전망을 개발하는 계획으로, '25년 9월부터 '26.1월까지 공공 논의 후 확정안 발표, 세부 사업 착수 예정
 - (노후화 전력망 교체) 기후변화와 기상학적 여파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 강화 필요, '40년까지 총 2만 3,500km의 송전선 교체, 8만 5,000개의 철탑, 통신 및 제어 시스템 개선, 400개의 변전소 신설 등 계획
 - (재생에너지 연계) 신규 건립된 저탄소 생산시설의 전력 생산지에서 소비 중심으로 최적화된 전기 운반 필요, 프랑스 전역 14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 부여
- *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성숙단계에 이른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Dunkerque), 르아브르(Le Havre), 포쉬르메르(Fos-sur-Mer)의 산업부지와 7개 경제개발구역 중심으로 시작 예정

〈2040년 프랑스 전력 수송망 흐름 전망〉



주: 파랑: 주요 전력수요처, 노랑: 원전, 빨강: 태양광 발전소, 초록: 풍력 발전소

자료: SDDR 자료집('25년 발표)

그림: 아래 파일의 P.27 <https://assets.rte-france.com/prod/public/2025-03/SDDR2025-synthese-21032025.pdf>

- (초고압 전력망 운영 최적화) '40년까지 더 많은 전기를 운송하고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초고압 전력망 강화, 주요 산업유역(해상풍력·태양광 발전소 등)과 대도시 전력 소비 증가 대비 중추망의 기술적 용량 증량 등

□ 유망 품목

- (전력기자재) 제조업 기반의 전력망 인프라 수요 증가 기대
 - (변전소 건설 장비) 400개 이상의 신규 변전소 건설 계획에 따라, 변압기·개폐기·보호장비 등 수요 증가. 또한,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변전소 및 지능형 운영 솔루션 기술 분야 협력 기회 예상
 - (지능형 송배전 솔루션) 전력망 디지털화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변압기·자동 개폐기·원격 감시 시스템 등 수요 증가 예상
 - (에너지 저장 시스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로 리튬이온 배터리·플로우 배터리·수소저장기술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 증가 예상
 - (케이블) 신규 송전망 구축 및 교체 계획에 따라, 초고압 전력 케이블·친환경 절연 케이블·광섬유 기반 스마트 그리드용 케이블 등 수요 증가 예상

□ 진출전략

- 對한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장 진입 고려 필요
 - '26년 1월까지 공공 논의 후 발표될 최종 전략 내용(지역별 구체적 프로젝트 계획, 장비 수요 계획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진입 준비
 - * '25년 9월 4일~'26년 1월 14일 국가공론위원회 주도로 발전 계획의 에너지, 환경, 산업적 영향에 관한 공공 토론 진행
 - 對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확인된 품목(변압기·전동기와 발전기·보드패널 콘솔, 발전 세트와 회전 변환기 등)을 중심으로 발주처(RTE 등)에 납품하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 확보 후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접근 필요
 - 프랑스 현지 시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관련 규정 숙지
 - * “케이블 공급 시장은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 유럽 분류의 적용을 받고, EDF는 현장에서 대부분 CPTM 설계 규정과 일치하는 케이블을 요구한다”는 프랑스 업계 전문가의 설명
 - 프랑스 전력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EU 기술 표준과 인증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전략 ②

적극적 마케팅과 현지 맞춤 전략으로 소비재 시장 입지 강화



전략 수립 배경

- '25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민간 소비가 GDP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전망
 - 프랑스는 연간 소매지출 및 인구 기준 독일과 영국 다음으로 유럽 3위 시장
 - 화장품, 식품 등 한국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K-뷰티는 프랑스 시장 내에서 가장 성장하는 틈새시장으로 인정받고 있음
 - * 르몽드, '한국이 뷰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25년 8월)
- 현지 트렌드에 발맞추고 인지도 높여 유럽 전역으로 시장 확장
 - 필수 인증 구비와 함께 적극적인 SNS 홍보로 브랜드 인지도 강화 필요

□ 현지 동향

- '2025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유럽' 행사로 국내 소비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 확인
 - * 2025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유럽 : KOTRA-롯데홈쇼핑-대중소협력재단 공동주관으로 '25년 5월 8~13일 파리에서 개최된 소비재 분야(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용품) B2C·B2B 행사
 - (B2C) 국내 소비재 기업 23개사 참가, 방문객 약 4만 명, 총 2,350건 판매, 뷰티 제품 조기 완판
 - (B2B) 국내 기업 50개사 및 유럽 13개국 바이어 120개사 참가, 511건 상담 진행, 약 5,200만 달러 규모 계약 추진
 - 유럽 전역에서 K-뷰티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전통적인 화장품 강국 프랑스에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 인기 재확인
 - 프랑스 3대 백화점 중 하나인 라파예트 등 현지 대형 유통사의 국내 중소 기업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

2025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유럽 행사 개요

구분	B2C전시·판촉(파리 종합박람회 연계)	B2B 상담 및 쇼케이스
일정	• 5월 8~11일, 4일간	• 5월 12~13일, 2일간
장소	• Porte de Versailles(4홀 내 96sqm)	• Pavillion Vendôme(1층 및 지하1층)
대상	• 소비재 23개사 제품 • 현지 참관객, 소비자 등	• 소비재 중소기업 50개사 • 프랑스 및 인근 유럽 바이어 120개사
내용	• 참가 기업 제품 판촉전 • 체험이벤트	• B2B 수출상담회 • B2B 쇼케이스

자료: KOTRA 파리무역관

〈2025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유럽 행사 모습〉



행사장 외관

제품 쇼케이스장

B2B 상담장

자료: KOTRA 파리무역관

□ 유망 품목

- (스킨케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은 현지 뷰티시장에서 유망한 틈새시장 중 하나
 - 프랑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 화장품이 '귀여운' 이미지로 젊은 층에 어필해왔다면, 이제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제형을 갖춘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성공적으로 넘어왔다'고 분석(르몽드, '25년 8월)
 - 정기적인 피부 관리와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식 스킨케어 방식이 프랑스의 웰빙·자연주의 트렌드에 어필되고 있음
 - 마스크팩의 경우, 프랑스 소비자들은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보습, 미백, 안티 에이징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 인기 높은 편
 - 여름철 폭염 장기화로 자외선 차단제 판매량 급증하며 동 품목에서 K-뷰티 브랜드 부상 중
 - * '25년 프랑스 상품비교 사이트 Idealo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10개의 브랜드 중 조선미인(Beauty of Joseon)이 8위를 차지

• (소스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운맛 소스 인기 상승세

-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배달음식 증가로, 피자, 치킨 등과 곁들일 수 있는 소스류의 수요가 높아졌으며, 특히 이국적인 매운 소스가 인기
- 매운 소스의 경우, 프랑스 신규 브랜드 진입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매운맛의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는 점고 감각적인 패키징이 특징
- 이국적인 소스 중 간장 소스와 바비큐 소스, 비빔밥 소스, 불닭 소스 등이 프랑스 유통망에서 판매 중
- 한식의 인기로 김치에 대한 프랑스인의 관심도 커져서 김치 소스, 김치 양념 또한 유통되고 있으며, 한국식 소스를 만드는 해외 브랜드도 증가 추세
- '24년 연간 프랑스의 동 품목(HS Code 2103.90 기준) 對한 수입액은 17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4% 증가한 수치 기록

□ 진출전략

• 현지 시장 진출 필수 인증 구비 필요

- 프랑스 바이어들은 K-뷰티 상품 중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CPNP 보유 여부와 성분 정보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음
- 현지 시장 트렌드가 친환경·천연 성분 제품인 만큼 필수 인증 및 유기농 인증 보유 필요

〈EU 유기농 인증(Euro-leaf) 마크〉



• 활발한 온라인 마케팅과 현지화 유통 전략으로 인지도 확장 및 입지 강화

- 프랑스 소비자들 사이에 한류의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개별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으로,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에 주력할 필요
 - * 프랑스 소비자들이 “매장에 오기 전에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브랜드와 제품들을 주로 찾는다”는 바이어 의견
- 식품의 경우,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해 포장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지 식품 산업 트렌드에 맞는 현지화가 중요하므로 프랑스 유통망과 긴밀한 협업 필요

전략 ③

원전 강국으로서 신규 혁신 기술 분야 상호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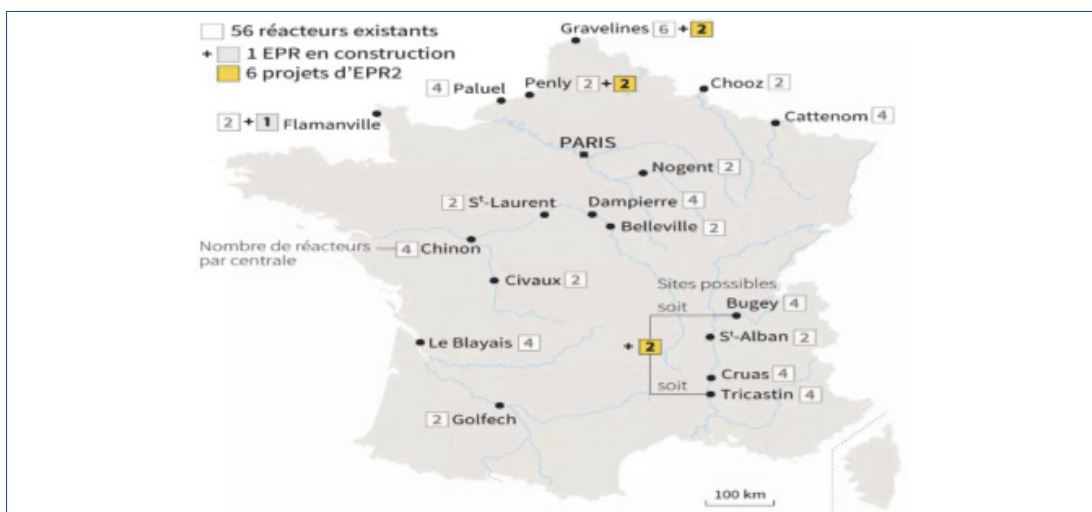
전략 수립 배경

- 프랑스는 유럽 제1의 전력 수출국으로, 원자력 중심의 발전 구조
 -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약 64.7%) 국가로, 총 56기의 원전을 운영 중
 -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비중 축소 방침을 폐기하고 기존의 원전 수명을 연장했으며, 신규 차세대 원전 개발 및 건설을 가속하는 정책 시행 중
- 원자력 강국으로서 차세대 원전 개발에 상호 협력 필요
 - 프랑스는 경험과 기술면에서 독립적이나, SMR 등 4세대 원전 분야에서 협력 기회 발생 가능
 -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킹 구축 및 파트너십 등을 통해 수요 발굴

□ 현지 동향

- 프랑스 정부, 원자력 발전 가속화 위한 첫 행보 시작('25년 6월)
 -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64.7%를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 전국 18개 발전소와 56기 원자로 보유
 - * 원자력 발전 비중 세계 순위 : 2위 슬로바키아(61%), 3위 헝가리(48.8%), 11위 한국(30.7%)
 - '25년 6월, 정부-주요 기관·기업 간, '2025~2028 원자력 전략 협정' 서명, EPR2 원자로 6기 건설 계획 및 SMR 개발 구체화
 - * 원자력 산업의 산업적 성과 강화, 10년간 10만 명 채용 장려, 연구개발 및 혁신적인 원자로(SMR) 개발 지원, 환경적 측면(핵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반영 등

〈프랑스 전국 원자력 발전소 분포도〉



주: 노란은 EPR2 프로젝트 예상 부지

자료: EDF, <https://www.lagazettefrance.fr/article/nucleaire-l-elysee-vise-desormais-2038-pour-la-mise-en-service-du-premier-reacteur-epr2>

□ 유망 품목

- **(원전 기자재)** 원전 관련 부품·장비 유망, 민감 분야는 일부 제약 존재
 - 케이블, 보일러, 펌프 등 원전 분야 부품·장비 유망할 것으로 전망
 - SMR 기자재의 경우, 배관, 탱크, 증기발생기, 전기 배선, 명령&제어(C&C), 펌프, 컴프레서 수요 발생 가능
 - 일반적으로 제조 장비나 시공 사양이 매우 정확하게 규정되며, 특정 인증이 필요한 부품의 경우 시장은 좀 더 개방되어 있음
 - 다만, 화재 안전 시스템과 방사선 보호 분야는 매우 민감하고 전략적인 분야로 유럽 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로봇 분야 역시 국가 안보 및 데이터 보호 문제로 진입이 어려운 편
 - 원격 운영 장비에 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한 편으로, 구매자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쌓아온 자국 기업을 선호하는 분위기

프랑스 원전 기자재 진출 유망 품목

기자재	현황
케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된 시장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 공급업체들이 이미 프랑스 시장에 진출한 상황 • EU 표준 덕분에 시장 진입은 용이한 편
보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제조 장비로 공급이 원활하고 경쟁 치열
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개방되어 있으나 진입은 어려운 편 • 장비의 중요성과 경험으로 오래 거래해온 공급업체 선호
펌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이 원활하고 경쟁이 치열한 편
비파괴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자의 수요 지속 증가, 공급은 원활한 편
배관·밸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이 원활하고 경쟁이 치열한 편
일반·기타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개방되어 있으나 구매자는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비 표준의 부재로 구매자가 기존 혹은 특정 브랜드 선호

자료: KOTRA 파리무역관

□ 진출전략

- 프랑스 정부의 원전 증설이 가속됨에 따라 다양한 협업 발굴 가능
 - 신형 EPR2 원자로 등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수요 발생 가능성 높음
 - 특히 SMR 등 4세대 원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상호 협력 기회 기대
 - SMR 기술협력의 경우,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기술협력 추진 필요

- SMR 프로젝트는 EDF가 담당하고 있으며, EDF는 원자력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Framatome, Orano, Vinci Energies 등의 기업에 대부분 위탁 중
- 신속한 국제 인증 획득으로 계약 공고 대비 필요
 - 시공 사양이 정확히 제시되고 특정한 인증이 필요한 부품 시장은 전략 분야에 비해 개방성이 큰 편이므로, 국제 인증 획득해 수주 가능성 높일 수 있음

프랑스 원전 기자재 주요 인증

인증	설명
ISO 194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공급망 전반의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 목적 •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인증 •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 담당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 대상 • EDF의 경우 프랑스 인증 위원회가 공인한 기관에서 받은 인증(유효기간 3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인증기관 홈페이지(www.cofrac.fr)에서 공인기관 확인 가능 • 신청 전 최소 6개월 이상 관리시스템 운영 및 최소 1회 이상 내부 감사 진행 권장
ESPN(안전력 압력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배출 수준에 따라 3단계(방출량 : N1 > N2 > N3) 혹은 압력으로 인한 위험도에 따라 5단계(0, I, II, III, IV)로 분류 • 장비 제조와 관련된 검사 요건 역시 이 분류에 따라 달라짐 • 레벨 N1의 ESPN 또는 하나 이상 포함된 조합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ASN 또는 ASN이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 • 레벨 N2 및 N3의 ESPN은 전문 검사 기관에서 수행 가능
RCC(설계 및 시공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발전소의 1차 계통 장비 설계, 시공 및 감시에 대한 규칙 정의 • 재료 선택, 용접조합 유형 관리·감독, 규격, 생산과 관련된 규칙 제안 • 세부 분류는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C-M : 가압수형 원자로용 기계 장비 * RCC-MRX : 고온, 실험용, 핵융합용 원자력 시설 기계 장비 * RCC-C : 가압수형 원자력 발전소용 핵연료집합체 * RCC-E : 전기·제어 시스템 및 장비 * RCC-CW : 가압수형 원자력 발전소용 토목 공학 * RCC-F : 가압수형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 방지

자료: KOTRA 파리무역관



전동기, 발전기, 변환기(HS코드 8501)

- 선정사유**
- 프랑스 정부의 대규모 전력망 개발 계획에 따라 송배전 기자재 수요 증가 예상
 - 400개 이상의 신규 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변압기, 개폐기, 보호장비 등의 수요 예상
 - 해당 품목의 對한 수입 증가세 유지·확장 필요
- 경쟁동향**
- '25년 6월 누계 기준, 프랑스의 동 품목 주요 수입 상대국은 독일(18.8%), 중국(13.6%), 덴마크(10.5%), 미국(10.4%)
 - 주요 10개 수입국 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이 유일, 동 기간 대체적으로 수입액이 줄어든 추세
 - 한국은 프랑스의 22번째 수입 상대국이며, 동 기간 전년 대비 8.2% 증가한 약 749만 달러 수입
- 진출방안**
- 프랑스 전력 기업·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중요
 - EU 기술 표준과 인증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HS코드 8507)

- 선정사유**
- 프랑스 정부의 대규모 전력망 개발 계획에 따라 송배전 기자재 수요 증가 예상
 - '4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예상
 - 간헐적 발전량 보안을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 플로우 배터리, 양수발전, 수소저장기술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 증가 전망
- 경쟁동향**
- '25년 6월 누계 기준, 프랑스의 동 품목 주요 수입 상대국은 중국(42.5%), 독일(11.1%), 폴란드(8.9%) 순이며, 중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
 - 한국은 프랑스의 8번째 수입 상대국으로, 동기간 약 5,854만 달러 규모 수입, 전년 대비 20.7% 증가한 수치 기록
- 진출방안**
- 공급망 재편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배터리 제조 투자 유치가 적극적이므로, 세액공제, 공장 설립 시 부지 확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포착 필요
 - 유럽 내 생산설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지 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의 방법 모색

원전 기자재 증기발생기(HS Code 8402)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크롱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라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 • 현재 운영 중인 56기 원전 수명 연장과 '50년까지 6~14기(혹은 그 이상)의 EPR 2세대 원자로 건립 및 시운전 목표 발표 •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장비 및 전문 인력 수요가 공급 대비 높은 상황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원전 시장 주요 구매자는 수천 개의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자재 유형에 따라 비유럽권 공급업체의 유럽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 증기발생기(8402) 품목의 경우, '25년 6월 누계 기준 對한 수입액 규모가 7만 5,455달러로 높지 않으나, 전년 대비 97.6% 증가한 수치로 향후 지속적인 수요 기대 가능 • 프랑스의 증기발생기 품목 주요 수입국은 크로아티아, 벨기에, 중국 순이며, 10위권 내 주요 수입국 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이 유일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F로부터 입찰을 수주한 현지 벤더(공급 기업)와 협력 모색 • 품질을 보증하는 국제 표준 인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천연성분 마스크팩(HS코드 3307.90)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코스메틱 전문 쇼핑몰에서 K-뷰티 섹션이 별도로 설치되는 등 관심이 커지는 추세 • 특히, 프랑스 SNS 인플루언서들이 최근 K-뷰티 콜라겐 마스크 효과를 콘텐츠로 만들어 올리면서 인기를 끌며 수요 급증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6월 누계 기준, 동 품목의 프랑스 수입액이 전년 대비 15.7% 감소하는 등 대체적으로 수입액이 줄었으나 對한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0.6%로 대폭 증가 • 주 수입 상대국은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이며, 한국은 9번째 수입국으로 동 기간 약 294만 달러 규모 수입액 기록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뷰티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브랜드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으로,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이 중요한 시점 • 유기농 및 비건 인증이 거의 필수적인 추세 • 주로 친환경 포장에 천연 성분을 앞세운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와 경쟁하고 있으며, 자극이 적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는 종류의 마스크팩 인기 |

자외선 차단제(HS코드 3304.99)

- 선정사유**
- '25년 프랑스 국내 기록적인 폭염이 2주 연속 지속되면서 자외선 차단제 판매 82% 증가
 - 자외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크게 성장 중
 - '24년 5월~'25년 4월 사이 프랑스 약국에서 누적 판매된 자외선 차단제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총 2억 3,700만 유로 규모
 - '25년 프랑스 자외선 차단제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 중 K-뷰티 브랜드인 조선미인 (Beauty of Joseon)이 8위로 뽐힘
- 경쟁동향**
- '25년 6월 누계 기준, 프랑스의 동 품목 주요 수입국은 미국(14.8%), 독일(11.5%), 이탈리아 (10.8%), 네덜란드(10.5%), 한국(10.4%)이며, 비슷한 점유율로 경쟁이 치열
 - 한국은 다섯 번째 수입국으로, 동 기간 수입액은 전년 대비 98.4% 증가한 약 8,709만 달러
- 진출방안**
-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PNP 인증 취득이 가장 중요
 - 친환경·천연 성분 제품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로, 유기농·자연 성분 인증 취득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
 - 브랜드 정체성에 맞고 EU 규정을 준수한 현지어 패키징 또한 중요하며, ESG 요소를 명시하는 것도한 도움될 것으로 보임

김치(HS Code 2005.99)

- 선정사유**
- K-콘텐츠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 김치는 대표적인 한식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디어 등에서 건강과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호기심 자극
 - 김치를 활용한 응용식품을 출시하는 프랑스 식품 기업이 많아지고 있음
- 경쟁동향**
- '25년 6월 누계 기준, 프랑스의 동 품목(HS Code 2005.99) 주요 수입국은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이며 한국은 19번째 수입국
 - 동 기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50만 달러. 이는 전년 대비 20.3% 감소한 기록이나, '24년 연간 수입액이 50.7% 급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도 분석 가능
 - 현재 다수 한국 기업이 진출한 상태이며, 배추김치뿐 아니라 깍두기, 열무김치, 비건 김치 등 출시 중
 - 프랑스 현지 기업들도 김치를 응용한 프랑스 식품, 김치 소스 등으로 현지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김치 제품을 출시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진출방안**
- 유럽은 식품 수입의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운 편으로, 각 식품별 재료와 성분에 따라 규제 유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김치의 경우, 복합식품에 해당하므로 EU 복합식품 규정을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현지 유통망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벤더 기업과 협업 필요

소스류(HS코드 2103.90)

- 선정사유**
- 프랑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운 소스 인기 상승, 판매액 상승 추세
 - '22년 매운 소스를 활용한 토크쇼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
 - 팬데믹 이후로 활성화된 장거리 여행으로 이국적인 매운 음식을 접하게 된 프랑스인이 많아지고, 재택근무 대중화에 따른 배달음식 증가로 피자, 치킨 등과 곁들일 수 있는 매운 소스가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
 - 프랑스 매운 소스 주 소비자층이 K-푸드의 소비자층과 겹치는 점을 생각하면, 고추장, 김치 소스 등과 같은 제품 또한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에 충분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경쟁동향**
- '24년 기준, 동 품목의 프랑스 주요 수입국은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영국이며, 네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점유율의 절반 이상 차지
 - 한국은 프랑스의 24번째 수입 상대국으로 '24년 전년 대비 37.4% 증가한 173만 달러 수입 기록 후, '25년 6월 누계 수입액은 전년 대비 19.5% 감소
 - 프랑스 시장에는 현재 간장 소스, 바비큐 소스, 비빔밥 소스 등이 출시됐으며, 프랑스 기업이 만드는 브랜드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음
- 진출방안**
- 유럽은 식품 수입의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운 편으로, 식품별 재료와 성분에 따른 규제 유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현지 유통망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벤더 기업과 협업 필요

더위관련 전자제품

- 선정사유**
- 프랑스는 여름에 서늘한 편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폭염 일수가 길어지면서, 폭염에 준비되지 않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더위 관련 전자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에어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일반 가구의 25%만이 에어컨 보유)으로, 폭염이 매해 계속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경쟁동향**
- '25년 6월 누계 기준, 프랑스의 에어컨 품목(HS Code 8415.10.) 주요 수입국은 중국, 네덜란드, 태국, 스페인 순이며, 중국의 점유율이 51.6%로 대부분을 차지
 - 동 기간 수입은 전체적으로 줄어들며 전년 대비 39.8% 감소 기록
 - 한국은 33번째 수입국으로, 동 기간 수입액은 약 4,000 달러로 크지 않으나, 전년 대비 701.2% 증가. '23년 6월 누계 수입액은 385만 달러 기록한 바 있음
- 진출방안**
- 공간 차지가 적고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옵션이 있는 소형 제품 인기
 - 프랑스인들은 경제적·환경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에어컨에 거부감을 보여 왔으나, 공공기관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설치율이 높아지고 있음. 친환경적 시스템이 출시되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



스마트시티

- 선정사유**
- 프랑스 정부, 'France 2030' 미래전략산업 프로그램 내 '지능형·지속가능한 영토(TID)' 프로젝트를 포함시켜 전략적 투자 지속
 - 파리, 리옹, 니스 등 주요 대도시는 이미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상당 부분 구축한 상태이며 현재는 지방 소도시에서 진행 중
 - 중소도시 및 광역지방자치단체(Metropole)를 중심으로 스마트 에너지, 교통·물류·보안 분야의 디지털 기술 도입 수요 증가 추세
 - 중소도시는 지역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지능형 공공 조명,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등 사회적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에 중점
- 경쟁동향**
-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EDF, 수에즈(Suez), 베올리아(Veolia), 부이그(Bouygues) 등의 프랑스 에너지·건설 대기업과 약 100여 개의 민간 기업
 - 대다수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
- 진출방안**
- 프랑스 공공조달 시스템은 프랑스 기업 위주로 구성되는 면이 있어, 현지 기업의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
 - 'France 2030'의 정책 방향은 디지털 전환이 뒤쳐진 소도시 및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소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킹 필요
 - EU 차원의 스마트시티 공모 프로그램을 통한 연계 진입 고려 필요

방산기술

- 선정사유**
-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프랑스 정부의 '전시경제(Economie de Guerre)' 기조에 따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방산 예산 확대, 생산체계 개편 본격화
 - 유럽 차원의 초국가적 방산 프로젝트 본격화로 기술 파트너나 하도급 참여 기회 확장 추세
 -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위협 영역 확대로 대기업, 디지털 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 기술 기업의 방위 생태계 진입 증가
- 경쟁동향**
- 기술 변화 속도와 복잡성 증가로 인해 기존의 방위 산업 중심의 R&D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 기술 부문에서 민간 영역 확대 추세
 - 방위 기업들은 스타트업, 연구소 등과 협력하며 외부로 확장 중이며, 과거 군사용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중
 - 군 장비 및 역량 확보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외주화가 증가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 증가

진출방안

- 프랑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 수출국이며 유럽 내 가장 역동적인 방위 산업국으로, 전통적인 무기체계뿐 아니라 AI, 사이버전, 해양·우주 분야 등으로 적극 투자 중
- AI 기반 감시 정찰 및 전자전 시스템, 사이버 방어 및 공격 역량, 무인 항공기(UAV) 및 수중 드론, 친환경 방산 소재 및 에너지 절감형 무기 체계 등이 유망
- 단순 수출보다는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기술 파트너십 형태의 진출이 유효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방산 기업 다수가 중소기업으로, 부품, 소재, 전장 시스템의 B2B 진입 고려 필요
- 프랑스가 안보 주권과 사이버 보안을 중요시하는 만큼, 유럽 규제 기준과 정보보호 역량, 방산 윤리 정책에 사전 준비 및 대응 필요

드라마, 영화 콘텐츠

선정사유

- 전통적인 문화강국으로 드라마, 영화 콘텐츠 개발이 활발한 편
- 특히 각종 영화제와 행사 등으로 한국 영화를 비롯해 K-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지속되고 있음

경쟁동향

-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 중
- 프랑스에서는 유료 구독과 광고 수익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이며, Canal+, Salto 등 로컬 서비스가 특히 오리지널 제작물과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통해 프리미엄 구독에 주력하고 있음
-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또한 프랑스에서 독점 콘텐츠를 보장하기 위해 현지 제작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

진출방안

- 글로벌 OTT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프랑스 고유의 OTT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법도 유력
- 프랑스는 로컬 콘텐츠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로컬 플랫폼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파트너십 고려 필요
- 프랑스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범죄, 스릴러 장르를 개발하거나 프랑스 역사와 문화를 다룬 소재와 결합하는 현지화 전략도 중요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프랑스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투자	한불수교 140주년 연계 첨단산업 IR	6월/파리 시내
소비재	K-소비재 팝업 스토어	하반기/파리 시내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프랑스 지방선거	3월 15일(1차) 3월 22일(결선)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프랑스 정부 2026년 예산 발표	'25.4분기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프랑스 파리 메종 오브제(Maison & Objet Paris)	1월 15~19일, 9월 10~14일	
프랑스 파리 춘계 텍스월드(Texworld Paris)	2월 2~4일	
프랑스 파리 종합전시회(Foire de Paris 2026)	4월 30일~5월 11일	
프랑스 파리 국제안경광학전시회(SILMO Paris 2026)	9월 26~29일	
프랑스 파리 코스메틱 360(Cosmetic 360)	10월 13~17일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박지현	과장	파리무역관	+33 1 55 35 88 62	parkjh@kotra.or.kr
2	곽미성	과장	파리무역관	+ 33 1 55 35 88 78	gms@kotra.or.kr

2026 프랑스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05-8 (95320)